566돌
한글날

한글주간
2012.10.5.~10.11.

# 한글, 함께 누리다

## Hangeul, Sharing With the World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 | 세종대왕기념관 | 10. 4. ~ 28.
한글 문화 상품·아이디어 공모전 | 세종대왕기념관 | 10. 4. ~ 11. 30.
집현전 학술 대회 |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 10. 5.
한글누리 어울림 마당 (공연) | 세종문화회관 특설무대 | 10. 5. ~ 7.
홍대 앞! 한글로 누리다 (전시 및 체험) | 홍익대학교 앞 | 10. 5. ~ 11.
뿌리 깊은 나무 (연극) | 국립중앙박물관 용극장 | 10. 5. ~ 31.
한글 휘호 경진 대회 | 광화문광장 | 10. 6.
한글 뿌리 깊은 나무 (전시 및 체험) | 세종이야기관 및 광화문광장 | 10. 6. ~ 9.
톡톡 한글, 누림 세상 특별전 | 경복궁 수정전 | 10. 6. ~ 11.
우리말 가꿈이 한글 번개 춤사위 (플래시몹) | 광화문광장 | 10. 7.
한글날 맞이 훈민정음 서예 행위예술 (퍼포먼스) | 광화문광장 | 10. 7.
외국인 한글 글씨쓰기 대회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 10. 8.
한글날 기념 국제 학술 대회 | 서울대 신양인문관 | 10. 9.
세계로 바람난 한글 (전시) | 국회의원회관 | 10. 8. ~ 12.
외국인 한글 백일장 | 연세대어학당 | 10. 9.
세종대왕 동상 3차원 영상 투사 (프로젝션 매핑) | 세종대왕동상 | 10. 9. 19시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학술 대회 | 국립고궁박물관 | 10. 12.

www.한글날.kr
www.hg2012.co.kr

Weekly 공감

2012.10.03/10 NO.178
korea.kr/gonggam



기획특집

# 내년 정부예산안 342조원 경제 살리고 민생 튼튼히 P25~45

한글날 566돌 한글아 놀자!… 장혁·신세경이 함께합니다 P16~23

이대호 일본무대 홈런왕도 거머쥔다… 추석연휴 대공세 P48~49

# 재정건전성은 올바른 방향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내년 우리나라 국가 살림의 개요가 발표됐다. 3백42조5천억원 규모의 2013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지출 증가율은 2012년도와 동일하게 5.3퍼센트로 계획되었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0.3퍼센트와 33.2퍼센트로 계획되어 있다.

2013년 예산안은 국내 상황으로 보자면 현 정부의 마지막 임기연도에 나온 예산안이고, 국제경제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예산안이라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은 선거를 의식해 정권의 마지막 해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퍼주기'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이번 2013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에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인 7~8퍼센트보다 2~3퍼센트포인트 정도 낮은 5.3퍼센트로 설정되어 있고 국가채무가 감소했다. 이러한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는 경제위기가 빈번해지고 있는 세계경제 현실하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세계경제 침체로 우리 경제가 3퍼센트 정도의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지나친 재정건전성 견지가 올바른 정책대응인가는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현실이다.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복지지출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를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의 4대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늘린 점도 바람직한 변화다.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유로존 사태에도 불구하고 견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경제위기가 빈번해지고 있는 세계경제 현실하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실업보험이나 사회보험료 감면대상자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융자지출 6.7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채무자를 지원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 좀 더 노력할 유인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가 정부의 직접 융자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출 증가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직접 재정융자인 경우 융자금 회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융자지출에서 회수 부분을 제한 부분만을 지출로 보아야 하며, 이차보전의 경우 향후 민간 금융기관이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2013년 예산안은 내년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4퍼센트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전망이 현실화돼서 그 성과가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지길 기대해 본다.

# Contents

178호 2012.10.03/10 통권 279호

**표지 이야기** | 올해는 한글이 반포된 지 566년째 되는 해다. 한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혁과 신세경이 한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지난해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나란히 출연했다. 위촉식에서 장혁과 신세경은 "한글처럼 과학적인 언어를 가졌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젊은 친구들이 우리말을 현명하게 사용해 정확하고 바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한준호 기자

기획특집

## 맞춤형 복지로 재정 건전화 내년 우리 예산 삶의 질 높게

내년도 나라살림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수와 수출을 지원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도 많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복지도 강화합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해 정책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지출이 늘었지만 재정건전성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경제는 힘차게 되살아나고 서민들의 삶은 보다 편안해지는 2013년을 기대해 봅니다.



48

54



50



**위클리 공감** korea.kr/gonggam
**발행일** 2012.10.03/1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0월 18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Weekly 공감〉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호를 읽고

### '탈북자들의 큰언니' 문영자 경사에 박수

어느새 우리 주위에서 탈북자를 쉽게 보게 되는데 탈북자 신변보호로 시작하여 여러 탈북자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서울 송파경찰서 문영자 경사'를 읽고 단순한 신분보호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을 비롯해 특히 아동, 여성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경찰공무원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영자 경사처럼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대욱(42·회사원·경남 양산시 소주동)**

### 명절 앞둔 주부들의 대화에 깊이 공감

177호 기획특집 '한가위만 같아라' 중 주부들이 말하는 명절에 대해 읽었습니다. '명절증후군'에 시달리는 주부들은 정말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명절 때만 되면, 시댁 일로 남편과 싸우는 일이 잦습니다. 대화 중에 모든 일을 나 몰라라 하고 방관하는 남편의 불만을 얘기한 부분이 공감되더군요. 즐거운 명절이 되기 위해선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해결책도 좋았습니다.

**여진희(36·주부·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 부모님 모시고 허리우드클래식 극장으로

사회적기업 기사 허리우드클래식 극장 편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매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관객을 위해 운영하는 김은주 대표의 철학에 감명받았습니다. 또 극장의 직원도 노인들을 고용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꼭 부모님을 모시고 허리우드클래식 극장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신용선(57·주부·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 청년해외취업 소식 반가워

청년해외취업 편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한 결과 구직자 4천명이 취업되었다는 내용이 반갑네요. 특히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취업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이 세계로 일터를 넓혀 취업난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이양운(44·자영업·경기 김포시 하성면)**

**추석특집호(177호)에 대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177호의 기획특집 '한가위만 같아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10월 10일(수) 오전까지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독자 인터뷰

### "공감 가는 기사 많아… 약자를 돕는 사회적기업 더 소개를"

김도형(35·음식점 경영·강남구 논현동)

김도형씨는 여의도와 강남에서 포항식 해산물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씨의 음식점 단골 손님들 중에 공무원이 많아 자연스럽게 〈위클리 공감〉을 접하게 됐다고 한다. 김씨는 "내용과 편집이 굉장히 세련돼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정 소식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했다. 시사문제뿐 아니라, 읽을거리, 문화계 소식이 적절히 담겨 있어 이름 그대로 '공감'이 된다고 했다.

**177호에서 가장 인상 깊은 기사는.**

"추석을 소재로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한 기획특집이 눈길을 끌었어요.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명절 스트레스'가 와 닿았습니다. 저도 명절에 친척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결혼은 언제 할 건지'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괜히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획특집에서 콕 집어 가족들 간의 대화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화법을 제시해서 좋았습니다."

**그 외에 눈길이 가는 기사는.**

"명절 때만 되면 도로가 차들로 꽉 차서 시간이 보통 때의 2, 3배는 더 걸리잖아요. 그 길고 지루한 시간에 심심함을 다뤄 줄 여러 추석 도우미 앱을 소개한 부분도 좋았습니다."

**〈위클리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 실린 '허리우드클래식 극장' 편에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사업을 위해 사회적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고 감명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위클리 공감〉에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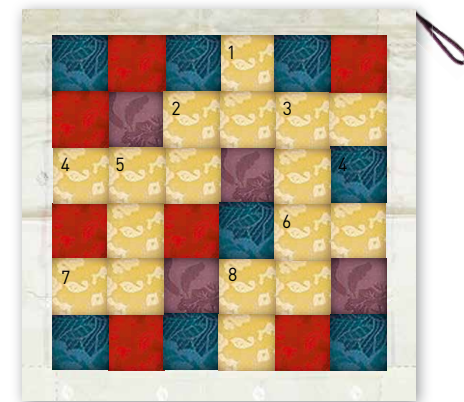
### '2012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립국어원에서는 점차 사라져 가는 지역의 언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언어문화를 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 달간 경북대학교와 함께 '2012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사투리를 활용한 유·무형의 상품 또는 아이디어, 관광 기념상품 또는 아이디어, 지역 언어 경관 아이디어, 창작물 아이디어 등이다. 상품인 경우에는 완성품을 제출하고,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일정** | 11월 2일까지
**응모분야** | 완성품(시제품과 시제품을 찍은 사진 포함) 또는 아이디어(이미지)
– 상품성 및 활용성을 고려한 관광상품(기념품), 인테리어 소품, 패션, 놀이용품, 교육상품군 등 / 소재, 재료, 품목에 제한 없음
**시상내역** | **대상** 1명(팀) 상금 1천만원 **최우수상** 1명(팀) 5백만원
**우수상** 1명(팀) 2백만원 **아이디어상** 6명(팀) 50만원
**접수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언어문화상품개발사업단
**문의** | saturi2012@naver.com / www.saturi-contest.org

###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한우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육우 품질개선 및 상품개발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요즘 과잉사육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산지가격이 폭락하고, 사료비 인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까지 겹쳐 한우 사육농가의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진흥청은 한우 수요 확대를 위해 소비자 욕구에 맞는 육우 품종과 상품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공모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응모대상** | 만 13세 이상(중학교 1학년 이상) 대한민국 국민
**응모주제** | 품질개선 / 제품개발 / 조리법
**응모분야** | 창작 아이디어(스토리텔링)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상금 2백만원, 우수상 2명 상금 50만원, 장려상 5명 상금 20만원
**응모일정** | 11월 3일까지
**접수방법** | 공모전 주관 사이트(www.trendcatch.co.kr)에서 관련 공모전의 '응모하기' 메뉴를 클릭한 후 응모 내용 웹문서 작성란에 직접 기입 방식을 통한 응모
**문의** | ☎02-6247-1315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0월 18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2. '대강 짐작으로 헤아려 보다'는 뜻을 가진 동사. "쌓인 가마니의 개수를 ○○○○."
4. 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
6.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발을 내디디는 모양.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7. 나이나 수준이 서로 비슷한 무리. "같은 ○○끼리 어울려 놀다."
8. 배냇니 곁에 포개어 난 이. 배냇니를 갈 때 제때에 뽑지 않으면 생기죠.

**세로**

1. 한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 또는 국가나 집단의 재산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 "균형과 배려가 보이는 새해 나라○○ 알아보기."
2. 병아리 등을 가두어 키우는 물건. 싸리나 가는 나무로 엮어 둥글게 만들죠.
3. 잡다한 것이 한데 뒤섞인 것. 또는 그런 물건. "그는 헌 옷이며 헌 가구 같은 ○○○○를 마당에 늘어놓았다."
5. 한옥에서 지붕의 비탈진 면을 받치고 건물의 가로 방향으로 추녀를 이루는, 도리나 들보 위에까지 걸쳐 지른 나무.
8. 몇 개의 수나 식을 합하여 계산함.

**〈Weekly 공감〉 176호(9월 19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연마 3 이른바 5 베니스 6 우도 8 비지
**세로** 2 마이스터 4 바우 5 베갯머리 7 도꼬지 8 비경

**〈Weekly 공감〉 176호 '공감 퍼즐' 당첨자**
이충주·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정봉순·경남 진주시 금산면
노지윤·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엄명석·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박주희·서울시 강동구 길동

기획재정부는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을 열고, 무역인과 중소기업들에 FTA 활용방안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다.

# FTA 컨설턴트… 베이비부머들 다시 뛴다

## 왕년의 무역 역군들, FTA 미활용 중소기업들에 컨설팅 업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FTA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앞으로 한·중FTA, 한·싱가포르FTA 등이 줄줄이 남아 있다.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FTA지만, 정작 FTA가 체결된 후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기획재정부는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을 열고, 무역인과 중소기업들에 FTA 활용방안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7일 제1기 FTA 활용 전문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을 개강했다. 1기 교육과정은 10월 12일까지 7주간 주 3회, 매회 6시간씩 진행되고 있다.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은 무역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은퇴인력과 FTA 미활용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들이 비즈니스 전략 수립역량이 부족해 FTA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무역관련 퇴직인력의 무역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FTA와 접목시켜 중소기업의 FTA 활용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김익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기둔화 등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FTA를 잘 활용하면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TA에 대한 관심도와 기획재정부 주관이라는 기대가 맞물려 1기 교육과정 경쟁률은 높았다. 기획재정부가 1기 교육생 선발을 위해 무역분야 은퇴자, 변호사·관세사·회계사 등 서비스 분야의 무역관련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선발예정 인원 40명의 3배가 넘는 1백26명이 신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44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교육생의 이력도 화려하고 다양했다. 교육생 중 36명(81.8퍼센트)이 기업에서 무역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이고 나머지 8명(18.2퍼센트)은 전문직 출신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그룹 출신이 8명이었다. 대우그룹(3명)·두산그룹(2명)이 뒤를 이었고 GS·LG·롯데 등 대기업 출신뿐 아니라 회계사·관세사도 있었다.

삼성전자 출신인 장문석(53)씨는 동구권·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해외본부에서 25년 이상 수출업무에 종사한 전문가다. 그는 주로 가전제품과 관련된 해외 영업 및 마케팅, 수출업무를 맡았다.

### 1기 교육생 44명 7주 교육과정 진행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FTA 컨설턴트로서 제2의 인생을 그리며 이번 1기 과정에 도전했다. 장씨는 "여러 국가에 주재한 경험을 살려 신시장 개척 등 해외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다"고 했다. 갑을 터키 이스탄불 지사장 출신인 정현식(56)씨도 "FTA 체결 국가인 미국, 유럽 등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입 관련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 직장에서 담당했던 업무분야를 살펴보면 마케팅을 담당했던 교육생이 23명(52.3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분야(11명)·국제금융(5명)·물류(4명)·관세(1명)가 뒤를 이었다. 교육생 가운데 29명(66.0퍼센트)이 50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가 9명(20.5퍼센트), 60대 이상이 6명(13.6퍼센트)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은 FTA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종합분석이 가능하도록 원산지 이외에 시장개척, 마케팅, 통관, 생산, 물류 등 무역 전(全)단계(15개)를 이해하고 FTA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정부가 90퍼센트를 지원하고 교육생이 10퍼센트를 부담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원산지 이외 시장개척, 마케팅, 물류 등 무역 전단계(15개)의 FTA활용 종합 분석이 가능한 컨설턴트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양자FTA, 다자FTA, 복합FTA 등 FTA 전반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조업·서비스 분야 등의 지원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도 꾀한다. 아울러 FTA 지역전문가, 업종전문가, 품목전문가, 정보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 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목표 가운데 하나다.

이번 과정의 주임 교수인 이창우(59) 한국FTA산업협회장은 "예를 들어 한·싱가포르 FTA는 한·싱FTA와 한·아세안, 아세안+3, 아세안+3+3FTA,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등 총 6개 FTA로 묶여 있다"며 "중국과의 FTA 역시 한·중FTA를 비롯해 모두 6개의 FTA가 가동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FTA에 대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 10월 2기생 모집… 내년까지 2백명 양성

"한·미FTA 체결 이후 일선 무역현장에서 FTA 활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원산지증명 등 통관 분야에만 국한돼 있어 안타까워요. FTA 가치사슬은 통관뿐 아니라 바이어 발굴, 구매조달, 물류, 결제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이번 교육과정에서 알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중에 2기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 2기 교육생을 받고 2013년까지 FTA 국가별, 업종·산업별, FTA 활용단계별 등 분야별 컨설턴트 2백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양성된 컨설턴트는 교육과정 수료 후 정부가 주관하는 FTA 컨설팅 등에 참여해 현장경험을 쌓고 향후 기업의 상담·자문역, 기업 전문인력 및 강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G

글·김남성 기자

---

김태완 기획재정부 산업지원팀장

### "일자리 제공·FTA 지식 전달, 일거양득이죠"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FTA가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교역 확대 및 기업 수익창출 증대 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FTA를 활용한 마케팅 및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역을 이해하고 평생 이 분야에 몸담았던 무역 역군들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이번 양성 교육과정을 열었습니다. 50대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인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올해 80명을 뽑고 내년에 추가로 1백20명을 선발할 겁니다. 2백명의 FTA 전도사들이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면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대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민간분야에서 FTA 관련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커질 겁니다.

FTA 컨설턴트 1기 교육생 원종태씨

# "플랜트 현장경험 살려 인생 2막 열어요"

"최근 다시 중동 붐이 일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지원센터에서 물류 및 국책 플랜트 전문 컨설턴트로 인생 2막을 열고 싶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 1기 교육생인 원종태(57)씨는 대우건설 토목건설부장 출신으로 토목건설업계의 베테랑이다.

그는 1979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1997년까지 약 20년 동안 리비아 등 해외 토목건설 현장에서 젊음을 바쳤다. 자재 관리, 물류 취급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1997년 대우건설 퇴사 이후 2011년까지 국내 건설회사에서 토목 관련 임원으로 일하며 인생 1막을 마쳤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FTA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을 우연히 접한 후 "내 인생의 2막은 FTA로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1기 과정에 도전했다.

**FTA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에 지원한 동기가 궁금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중동과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스스로 토목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퇴직 후에도 제가 청춘을 바쳤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 네트워크 등을 다시 사회에서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때 FTA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경험과 노하우가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우리 기업들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과정은 어떤 겁니까.**

"교육과정의 교과서인 이창우 교수님의 〈FTA노믹스〉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창우 교수님이 15년 전부터 쌓아온 FTA에 관한 모든 경험이 녹아 든 책입니다. 관련 법규, 제도, 역사, 실무 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들 사이에서는 'FTA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깊이가 있어 수업을 듣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또 수업 때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오셔서 강의를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과정에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 과정은 매주 세 번 6시간씩 7주간 진행됩니다. 하지만 커리큘럼이 좋은 데다 배울 게 많아서 저희 1기 교육생들이 이구동성으로 '6개월은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FTA 컨설턴트 1기 교육생 원종태씨

또 과정 수료 후에 기업들과 수료생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기업들과 접촉을 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관련 정보도 없으니까요. 교육만큼이나 교육생과 저희가 필요한 기업들을 연결해 주는 부분도 중요할 듯합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다들 쟁쟁한 분들이고 경험이 다양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국제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 있어 각자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죠.

국제변호사분도 있어 외국 기업과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어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자극을 주면서 공부하다 보니 과정 외에 스터디를 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공부를 합니다. 혼자서 공부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교육 후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FTA 프로세스 과정에서 물류 및 유통 부문 컨설턴트로 일하고 싶습니다. 중동이나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쏟아질 건설 및 제조업 분야 대형 플랜트 수주나 우리나라의 FTA 체결 국가에서 밀려들 플랜트 수주에 기여하고 싶네요. 컨설턴트 경험을 더 쌓고 나서는 FTA와 관련된 사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G

글·김남성 기자

태풍피해 복구

# "군·경찰 2백여억 원 기여 효과"

## 일손 구하기 힘든 시기에 집중적인 도움은 비용 이상의 의미가져

충북 괴산군 문광면에서 인삼재배를 하는 정응태씨. 지난 9월 18일 우리나라 남부를 관통한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6천2백 평이나 되는 인삼 해가림 시설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고는 눈앞이 깜깜했다. 일손이 귀한 농촌에서 언제 시설복구를 마칠 수 있을까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다. 정씨 인삼밭 인근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소속 군인 2백여 명이었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정씨네 인삼밭에서 해가림 시설을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정씨는 "군장병들 덕분에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직 태풍의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군장병들 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 26만여명 참여… 군 지원장비만 6천3백여대

올해는 1962년 이후 50년 만에 태풍 4개가 한반도에 상륙한 해였다. 특히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볼라벤 등 태풍 3개가 연이어 우리나라를 지나감에 따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거듭된 재난에도 불구하고 군인·경찰·자원봉사자들의 밤낮을 잊은 작업 덕분에 응급복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태풍으로 인해 3천5백77세대, 9천8백48명의 이재민과 총 6천6백53억원(태풍 산바 피해 미포함)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카눈 1명 ▲집중호우(8월 12~24일) 2명 ▲볼라벤·덴빈 5명 ▲산바 2명 등 자연재해로 인해 모두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피해가 큰 만큼 군경의 지원규모도 컸다. 올해 발생한 주요 재난현장 복구에 참여한 군인·경찰 및 자원봉사자는 총 26만3천여 명에 이르며, 군에서 지원한 장비만도 6천3백여 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재난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현황** (2012년 9월 23일 기준)

| 군 | | 경찰 | 자원봉사자 |
|---|---|---|---|
| (병력) 203,429명 | (장비) 6,302대 | 16,584명 | 42,519명 |

육군 50사단 기동대대 소속 장병 1백여명이 지난 8월 31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일대에서 태풍 피해농가를 찾아 찢긴 비닐과 철재를 철거하고 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군인·경찰·자원봉사자들이 피해복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는 물론 초기 복구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들의 실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겠지만, 복구인력의 인건비와 장비지원을 감안하면 올해에만 2백20억원 이상의 기여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건설현장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는 하루 7만5천원(8시간 기준)이다. 중장비의 경우 하루 동원에 필요한 비용이 덤프트럭 40만원, 굴삭기 40만~50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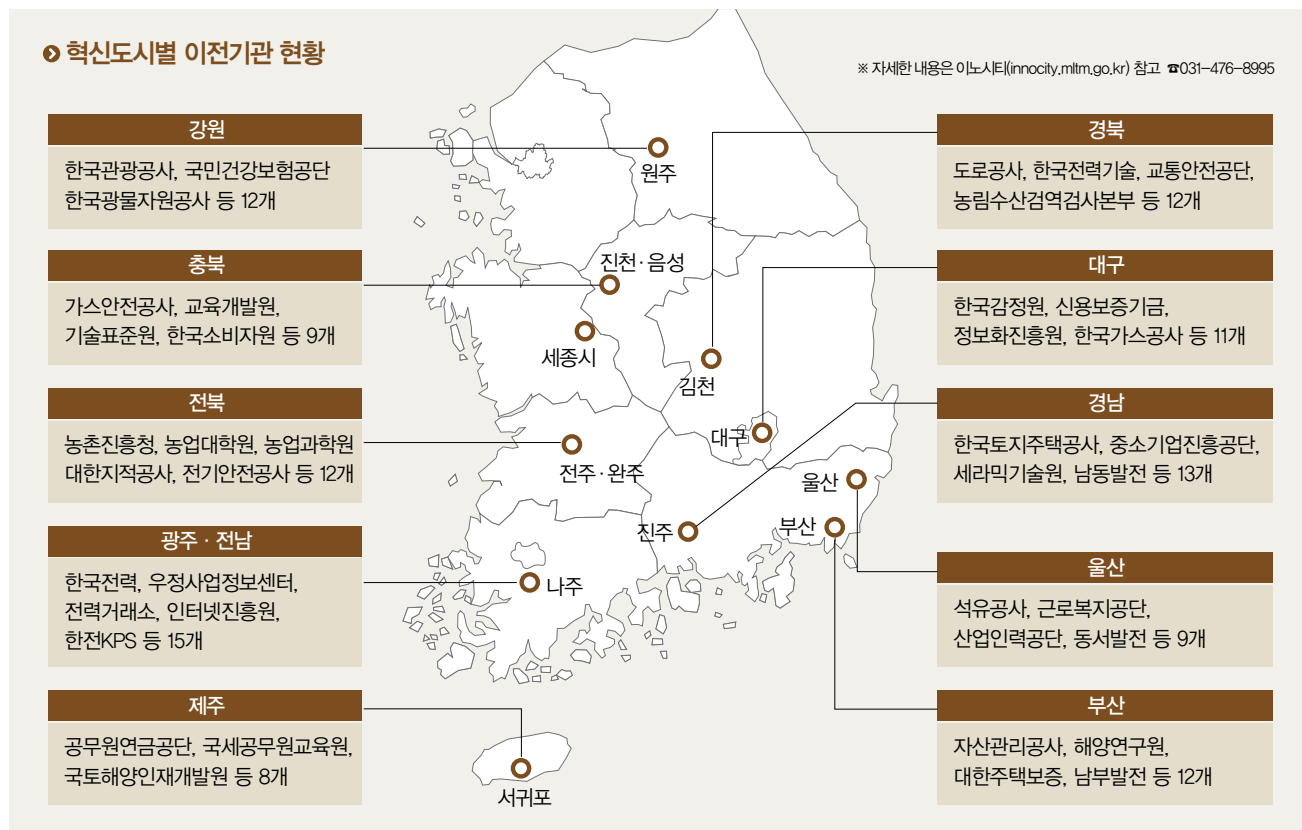
더구나 농촌지역은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수확철에도 과일이나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수백 명의 젊은 군경인력이 태풍피해 농촌지역을 찾아 집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비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은 "본연의 임무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재난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군인·경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는 추석 이전까지 최대한 복구작업을 서둘러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 혁신도시 90퍼센트 공정… 12월 첫 입주

## 제주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6곳 이전에 앞서 지역과 일체화 노력

전국 10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공사가 90.4퍼센트의 공정률(8월말 기준)을 보이며, 연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되는 이전지역 부지조성률은 97.9퍼센트에 달하며 진입도로는 85.2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은 '부산 혁신도시는 이미 부지조성을 완료했고, 광주 전남, 울산, 경북, 경남, 제주 혁신도시도 90퍼센트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를 마친 공공기관들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을 필두로 오는 12월부터 혁신도시로 옮기게 된다. 이들 공공기관은 이전대상 지역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 원주), 한국석유공사(울산)는 농촌마을과 1사(社)1촌(村), 지역학교와 1사(社)1교(校) 등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교통안전공단(경북 김천), 법무연수원(충북 진천)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자매결연 마을의 일손 돕기에 앞장서는 등 한마음으로 지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는 불우이웃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3백만원)을 전달하고, 부산 연제구 노인들을 초청해 서민금융강좌, 국악한마당, 식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새청사 건축 1백21곳 중 99곳 착공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통해 지역에 투자되는 돈은 약 21조원에 달한다. 이 중 10조원가량은 토지보상, 부지조성 등에 LH 공사가 투자하고, 나머지 10조원가량은 1백21개 공공기관 신청사 건축비로 투자된다.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에는 7천억원 가량이 투자된다. 건축비의 40퍼센트 이상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행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총면적 4천5백만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들은 계획인구 27만명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9만7천호의 주택건설이 추진 중에 있다. 수도권의 1백4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4만7천명에 달한다. 이 중 10개 혁신도시로 옮겨가는 인구는 3만8천명에 이른다.

### 지역인재 채용에도 적극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지방 인재에 대한 채용기회를 적극 확대하도록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의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채용인원 1만4천여 명의 약 50퍼센트에 해당하는 7천1백9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올해 59개 기관에서 4천3백2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지역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8~2010년에 지역인재 채용률이 30퍼센트에 못 미친 42개 기관은 채용할당제, 목표제, 전형단계별 가점부여제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앞으로 1백47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에너지 사용 1/3… 녹색 건축물 추진

혁신도시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혁신도시에는 에너지 사용을 기존 건축물 대비 3분의 1로 절감하는 녹색 건축물이 추진된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은 '제곱미터당 1년 동안 사용한 시간당 에너지'를 킬로와트 단위로 표기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 1등급을 충족시키려면 제곱미터당 1년 동안 시간당 3백킬로와트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의 김남균 사무관은 "10개의 혁신도시마다 각 1개씩 시범기관을 선정, 1등급 기준의 절반 이하(에너지 사용률=제곱미터당 1년 동안 시간당 1백50킬로와트 미만)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짓고 있다"며 "정부는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나머지 건물에도 1등급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입주를 시작하는 제주 혁신도시의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조감도.

전북 혁신도시에 들어설 전기안전공사 조감도.

기존 건축물이 에너지 효율 5등급 수준인 연간 제곱미터당 한 시간에 5백킬로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효율이 50퍼센트 이상 향상되는 수준이다.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공공기관 청사는 녹색건축을 선도하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추진된다. 이들 건물에는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적극 활용된다. 혁신도시가 10개의 시범기관을 통해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24억원에 달한다.

혁신도시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며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도시로 건설된다. 10개 혁신도시에 2백68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가 건설되며, 시민공원과 수변공간 등 25퍼센트가 넘는 충분한 녹지면적이 확보될 예정이다.

김남균 사무관은 "친환경 도시 건설로 연간 온실가스($CO_2$) 배출량을 1만4천톤 줄일 수 있다"며 "이는 5백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말했다. G

글 · 이범진 기자

# “성범죄자 신상정보 지역주민에 제공을”

##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정책토론회… 국민안전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묻지 마 범죄’, 아동 성폭력 등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무총리실 등 후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모색됐다.

김순원 기자

9월 27일 국무총리실 등의 후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날 발표자들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 근절을 위해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 등 범죄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등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9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주제발표, 지정토론 등을 통해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묻지 마 범죄’와 아동성폭력 등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범죄에 대해 장기적·다각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국무총리실과 일부 언론사가 공동후원한 이번 행사는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처벌 강화는 재범 또는 유사범죄 발생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범죄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문화 등 사회자본의 강화를 통한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접근경로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정책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 사각지대엔 지역사회 도움 필요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41.5퍼센트가 주취 상태였다”면서 “음주 후 범죄 행동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폭음을 삼가는 음주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센터장은 “더불어 전자감시는 위치추적만이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수시 접촉 및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장착하게 한 후 스마트폰을 활용해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시 현재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성범죄자의 등급을 매겨 등급별로 공개 수준을 차등화하고 ▲성범죄자가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지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기의 범행에 처벌만으로 대응하는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심각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해 아동·청소년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범죄의 여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도울 수 있는 피해회복 중심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복귀 가능성 열고 지속적 교화를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종교, 문화, 의학, 시민단체, 언론 분야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사회안전 저해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며, 특히 범죄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화 및 지원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은 “전자발찌, 신상공개 확대 등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고, 강인숙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은 “범죄 가해자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끈기를 가지고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들은 언론 및 인터넷 등의 매체가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범죄가 소외감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는 순간 전염병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도 “언론의 상업주의 등으로 인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자극적인 범죄기사 보도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고, 방미영 e문화예술교육연구원 원장은 “이용자 자정노력을 통해 악플, 신상털기 등 심각한 인터넷 폭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DB

은둔형 외톨이의 절망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서울 여의도동 칼부림 사건의 현장검증. 은둔형 외톨이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사회안전 저해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정신건강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채경덕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계장은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결손 가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교 및 직장에서의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 확대 등 조기발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정부대책과 함께 민간 협력·동참 중요”

한편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안전 저해범죄는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강력한 정부 대책과 함께 민간 부문의 적극적 협력과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성범죄자 관리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치안 인력 및 예산 확충 등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범죄 근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총리실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와 함께 공동으로 사회안전 저해범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내륙도시 충북 충주에서 내년 8월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린다. 83개국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연인원 30억명이 TV 생중계를 시청한다.

# 내륙 충주에 세계적 수상 이벤트 '레디 고'

## 내년 8월 25일~9월 1일… 83개국 참가신청 역대 최대 규모

내년 8월 25일~9월 1일까지 8일간 충북 충주에서 열리게 될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전 세계 8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을 이룰 전망이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시종)는 25일 "현재까지 83개국이 참가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2년 슬로베니아 대회 참가국 67개국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내륙 도시 충주가 세계에 그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김정선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당초 80개국서 2천3백명이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국제조정연맹(FISA)과 긴밀하게 협력해 세계 각국의 연맹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유치 운동을 벌이고 주한 외국대사를 통한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1천1백5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마련한 타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장 도로 시설물 등 건설사업이 4백62억원, 음식점·숙박 등 체재 식음료사업 부문에서 60억원, 운수 및 보관 사업에서 34억원, 홍보 임차료 등 사업서비스를 통해 93억원, 개·폐회식 등 문화·오락 서비스에서 26억원, 정기 총회 등 기타사업을 통해 4백8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를 통해 총 5백12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12월 마무리

지역 여론도 호의적이다. 조직위원회 강선기 주무관은 "대회를 찬성하는 지역 여론이 89퍼센트로 나타났다"며 "국제적 홍보도 잘 이뤄져 유럽·미주 지역에서 30억명 이상이 TV로 생중계되는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대회 준비도 착착 이뤄지고 있다. 국비 2백10억원, 도비 2백31억원, 시비 2백31억원 등 총 6백7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8년 착공된 이 공사는 오는 12월 마무리돼 일반에 선보이게 된다. 그랜드 스탠드, 피니시 타워, 마리나센터, 2.4킬로미터에 달하는 보트하우스 중계 도로, 0.7킬로미터 길이의 경기장 진입로 등으로 이뤄진 이 사업은 2012년 9월 현재 80퍼센트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2개월 후 완공될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은 자연과 조화된 최고의 선수 편의시설을 갖춘 친환경 조정경기장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대회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조직위는 오는 10월 국제조정연맹(FISA) 경기임원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년 2월에는 국제경기대회 운영 전문가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갖는다. 또 내년 4월과 7월에는 국제조정연맹의 실사를 통해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받을 예정이다.

### 숙박시설·교통편 확보 등 준비 '착착'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포근하고 편안한 숙박시설이 필수적이다. 조직위는 이를 위해 23개 시설에 2천3백 개의 객실을 확보했으며, 숙소별 안내데스크를 운영해 투숙자의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키로 했다. 각 숙소에는 장애인 출입통로 및 화장실, 보조침대, 세탁시설 등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조직위는 또 대회장까지 관람객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 하루 평균 80대의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으며, 청결하고 안전한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5천7백명의 인력을 투입해, 풍족한 식사와 다양한 메뉴, 종교별 기호도에 맞는 식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회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개·폐막식 행사를 품격 높게 장식하기 위해 조직위는 '수상에서 펼쳐지는 감동과 환희의 개·폐막식'을 준비하고 있다. 조직위의 강선기 주무관은 "한국문화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수상의 이점을 살려 신비감 있는 무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대회 개막을 11개월가량 앞둔 9월 26일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충주조정대회 성공 개최 기원을 위한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경제·문화·정치·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자치단체장 등 각계 각층 인사와 도민 1만5천여 명을 초청해 마련된 이날 보고회에서 이시종 조직위원장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팬텀·피에스타·달샤벳·뉴이스트·제이준·투빅 등 아이돌 가수와 김수희·박미경·조항조·최영철·김륜희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했다.

글·이범진 기자

오는 12월 완공 예정인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조감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가 개최한 '길거리 조정대회' 모습.

조정경기는?

### 공식대회는 2천미터뿐… 경기규칙도 단순

조정(Rowing)은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속도를 경쟁하는 경기. 17세기 영국 템스강을 중심으로 한 해상 교통수단으로 보트가 보급된 것이 유래다. 처음 조정경기가 열린 것은 1715년. 이후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됐다. 1892년에 세계조정연맹(FISA)이 설립됐으며 1893년 유럽선수권대회, 1962년에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돼 국제대회로 발전했다.

조정은 올림픽 정식종목이다. 처음 채택된 것은 1896년 아테네올림픽 때. 하지만 당시엔 악천후로 대회가 열리지 못했고, 1900년 파리올림픽 때 남자 부문 4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졌다. 여자 경기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부터 시작됐다.

경기규칙은 단순하다. 규정된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2천미터를 가장 빠르게 주파한 선수 또는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 아마추어는 5백미터 단축 경기를 갖기도 하지만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 공식대회에는 2천미터 경기만 있다. 한 선수가 두 개의 노를 젓는 경주는 스컬링(sculling)이라 부르고, 하나의 노만 젓는 경주는 스위프 로윙(sweep rowing)이라 부른다. 카누는 덮개가 없고 노가 한쪽에만 달려 있는 반면, 카약은 덮개가 있고 노를 양쪽으로 젓는다. 조정은 뒤쪽으로 간다는 점이 다르다.

# 뿌리 깊은 한글… 한글 매력에 빠져보자!

## 10월 중 1백20여 개 행사… 해외의 세종학당들도 이벤트 준비

'가갸날'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던 한글날, 올해도 한글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의 얼과 혼을 지키는 역할을 해온 우리 한글에 대한 후손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하주희 기자

훈민정음 반포 566돌을 기념해 한글주간(10월 5~11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걸려 있다.

오는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한글 반포 566돌을 기리기 위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9일을 전후로 한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을 '한글 주간'으로 정했다.

이 주간에 '한글, 함께 누리다'라는 주제 아래 한글날 경축식과 한글 관련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이 열린다. 한글 주간이 끝난 후에도 10월 말까지 행사는 계속 열린다. 10월 중 열리는 한글 관련 행사는 1백20여 개에 달한다.

한글 주간의 대표행사로는 '한글누리 어울림마당' 행사와 '톡톡 한글, 누림 세상'이 있다.

### '한글아 놀자'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한글누리 어울림마당'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야외무대 및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한글을 주제로 펼쳐지는 놀이 마당이다. 한글을 소재로 한 무용극, 패션쇼, 음악회 등 여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만한 행사다. 한글날 기념 휘호 경진대회와 한글 뿌리 깊은 나무 체험행사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톡톡 한글, 누림 세상'은 한글을 주제로 한 전시로, 한글 주간에 경복궁 수정전과 야외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한글의 확산 과정과 한글의 우수성을 조망할 전시는 4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이 오다'라는 주제 아래 훈민정음 해례본·언해본 등 목판인쇄물과 월인천강지곡, 오륜행실도 등의 금속활자, 세조와 정조의 어필 등 과거의 손글씨를 볼 수 있는 자료 등이 전시된다. '한글은 디지털이다'라는 전시 마당에서는 천지인 방식, 나랏글 방식 등 휴대전화에서 입력하는 다양한 한글 방식을 볼 수 있다. '한글은 친구다' 마당에서는 세계 속의 한글의 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영상을 볼 수 있다. 해외의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는 사람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코너도 있다. '한글아 놀자' 마당에서는 한글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전국의 국어문화원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강원대 국어문화원에서는 외국인 글짓기 대회와 한국 전통놀이 문화 체험 등을 준비했고, 경상대 국어문화원은 경남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의 행사를 열 예정이다. 전남대 국어문화원과 제주대 국어문화원도 각각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 동아대 국어문화원은 우리말 사랑 표어 공모전을 열고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를 다섯 곳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행사도 눈에 띈다.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공공언어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공공언어 학습용 팟캐스트를 시범적으로 올려놓는다. 이색 행사도 열린다. KBS 국어문화원에서는 10월 5일 한글날 특집 '어린이 발음왕을 찾아라' 시상식을 연다. 사전에 접수된 UCC 영상물을 심사해 발음이 좋은 어린이를 뽑는다.

### 오사카 문화원에선 '경상도 사투리 미니 특강'

해외에 있는 세종학당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오사카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은 '경상도 사투리 미니특강'을 연다. 뉴욕 세종학당은 맨해튼 한인 퍼레이드를 연다. 한인 동포사회 각 기관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맨해튼을 행진하는 행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열리는 행사도 있다. 대구시와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충청남도에서 우리말 글짓기 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 경상북도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말로 발표하는 우리말 발표대회를 연다. 파주 헤이리에서는 한글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한글 티셔츠를 만들어보는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글·하주희 기자

---

접~속! 누리-세종학당

### 해외서 인터넷으로 한국어 배워요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누리-세종학당에 접속하면 된다. 누리-세종학당은 한국어를 교육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다.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등 8개 국어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의 교육 내용과 한국어 교육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제공,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창구로 활약하고 있다.

**누리-세종학당 접속 방법 : www.sejonghakdang.org 로 들어가거나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

한준호 기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장혁과 신세경의 드라마 출연 당시 모습이 새겨져 있는 위촉패를 전달했다.

한글 홍보대사 장혁 · 신세경

### "〈뿌리 깊은 나무〉 찍으며 우리 글 소중함 알아"

장혁과 신세경이 한글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지난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위촉패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나란히 출연했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는 한글 창제 과정과 한글의 소중함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장혁과 신세경은 "드라마를 찍으며 한글의 소중함을 더욱 느꼈다"고 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한글과 그 창제 과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요.**

**신세경** : 멋진 드라마를 만나서 좋았는데 여기에 한글 홍보대사까지 맡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어린 친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현명하게 한글을 사용하고 바른말로 소통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장혁** : 저희가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한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기여하는 캐릭터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홍보대사에 꼭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한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영화나 드라마 찍는 틈틈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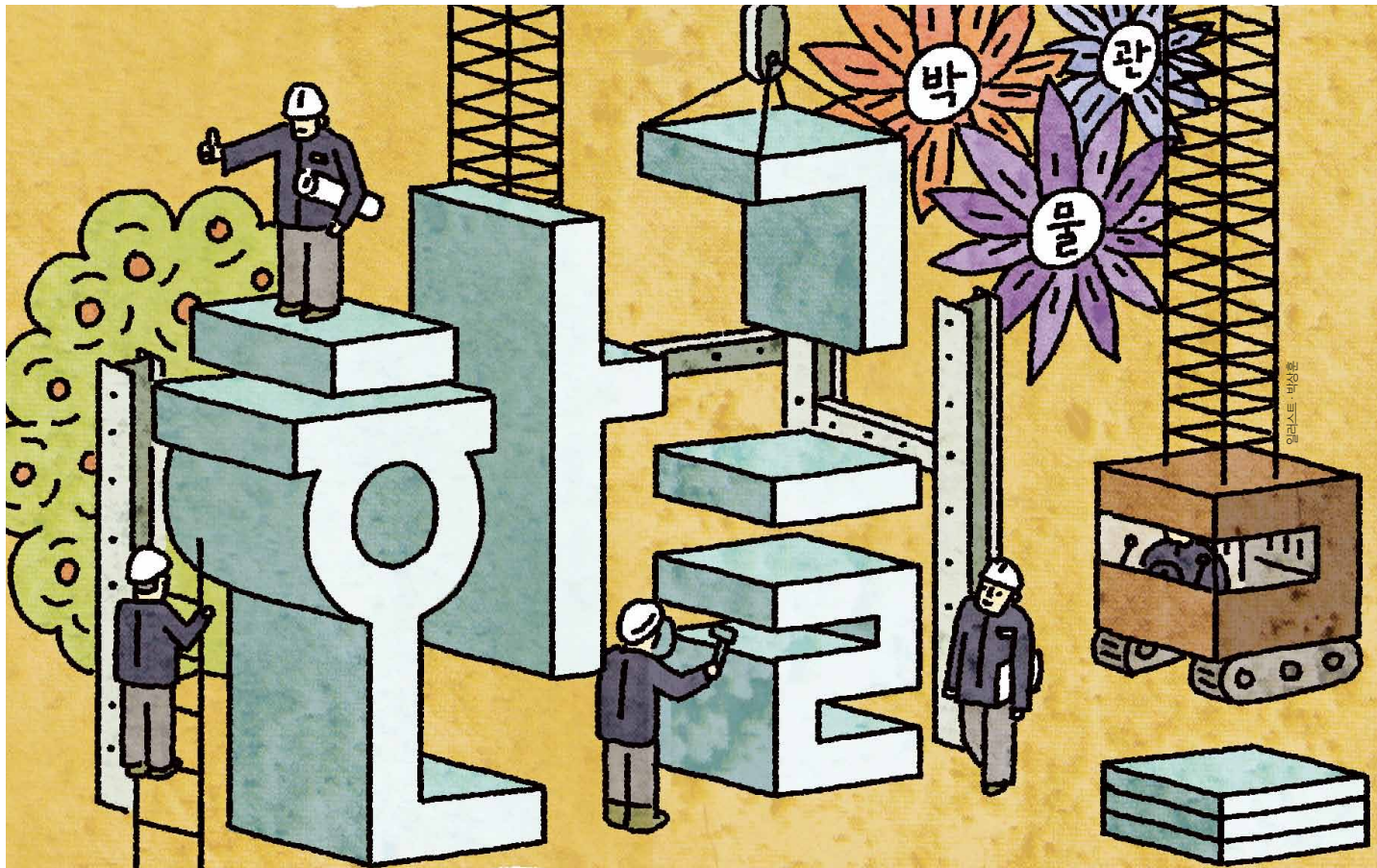
**한글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혁** : 무엇보다 오해가 없도록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어를 그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평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세경** : 한글은 참 과학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글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려고 해요.

**한글이 있어서 참 좋다 싶은 때가 있나요.**

**신세경** : 가끔 주위에 보면 아름다운 한글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글 이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였구나 싶어요.

**장혁** : 좋은 뜻을 가진 훌륭한 한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해외의 세종학당에서 〈뿌리 깊은 나무〉를 영상 교재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해외로 전파하는 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 같아 기쁩니다.

# 한글 가치 확산의 전초기지 내년에 완공

## 전시·체험과 연구 및 콘텐츠 개발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

세계인들이 너도나도 K팝을 따라 부르면서 한국어 그리고 한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글은 유치원생이 익히는 '가나다'를 넘어 한글넥타이나 티셔츠로, 혹은 도자기 무늬로 거듭나는 고급 콘텐츠로 부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글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집중하고 새로운 미래가치로서의 한글을 확산시키는 거점 기관으로 한글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글 세계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될 한글박물관 건립 공사가 한창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1년 7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들어설 한글박물관의 착공식을 가졌고,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글박물관은 단순한 전시관의 개념을 넘어 한글을 테마로 한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한글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위한 기반 시설이자,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 전시와 체험,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곳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박물관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글박물관은 한자 문명시대에서 우리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는 한글 문명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글은 그 과학성과 철학적 상상력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한글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자는 분위기가 저변에서 확산되고 있다.

###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안에 들어서

한글박물관은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글 문화의 상품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라."라며 직접 챙기면서 시작됐다. 한글박물관은 건축 연면적 1만 1천3백22 제곱미터(3천4백2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전시 면적은 4천2백제곱미터다. 총사업비는 3백19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한글박물관은 외형적으로는 전통 건축을 소재로 한국적인 조형미를 살리고 과거 역사의 흔적 위에 새로운 역사의 켜가 쌓여가는 형태로 구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박물관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꾸며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시공간은 상설전시실과 교육체험실, 그리고 한글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한글누리 등 세 곳으로 나뉜다. 이 중 상설전시실은 '한글을 만들다', '한글을 꽃 피우다', '한글을 생각하다' 등 세 공간으로 나누어 관련 자료를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을 만들다' 공간에서는 한글이 없던 시대부터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훈민정음 등을 전시해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글을 꽃 피우다' 공간은 교육, 인쇄문화 등으로 이어지는 국어생활 전반에 대한 테마를 보여주고 '한글을 생각하다'에서는 한글의 정보화, 한글 디자인 등 한글의 미래와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룬다.

###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꾸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박물관을 체험형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본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한글 관련 기록들을 한글박물관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한글 창제 이후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문자자료 및 세계 문자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재외동포와 학부모 등을 위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교육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한글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전문가 양성에도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한글박물관은 콘텐츠 산업의 길잡이 역할도 맡는다. 한글 관련

한글박물관은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 · 조선어 독본 · 조선말 큰사전**
>
> ### 희귀 한글자료 기증 잇따라
>
> 한글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한글 자료에 대한 기증도 이어지고 있다. 자료수증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천3백여 점의 한글 자료를 기증받은 바 있다. 가장 많은 한글 자료를 기증한 사람은 서수열(78·광주 광역시)씨로 그가 평생 수집한 고소설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 〈장끼전〉, 〈춘외춘〉, 교육지침서인 〈유년필독석의〉 등 총 9백여 점을 한글박물관에 제공했다. 여기에는 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희귀자료와 일제시대 및 미군정 당시 발간된 〈조선어 독본〉, 〈조선말 큰사전〉 초간본 등 전시 활용도가 높은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 이 밖에도 한글운동가 이봉원(65·경기도 안양시)씨가 한글 운동 관련 회보, 요람, 펜던트 등을 기증했다. 소중하게 모은 자료를 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기증자들 가운데 서수열, 권오익씨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한글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한글 자료의 기증 및 기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대왕탄생일에 맞춰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문중이나 개인이 소장한 한글 자료의 기증을 유도할 계획이다.
>
> 문화부 박물관정책과 유호선 학예연구사는 "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알리는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이곳에서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파생 문화상품과 관련 디지털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세계시장에 한글을 하나의 상품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글정보화 산업은 문자 폰트 시장의 규모가 이미 3백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 모바일과 앱 등에서 1천억 원대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관점에서 한글박물관의 건립은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산업진흥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G

글·김대현 기자

# 알쏭달쏭 우리말… '가나다전화'로 해결!

## 문의 전화 하루 평균 2백 건 넘어… 트위터 즉시 응답, 스마트폰용 수화앱도 큰 인기

#5시 5분을 '오 시 오 분' 또는 '다섯 시 다섯 분'으로 읽지 않는 까닭은?
정답 : 분과 초는 모두 한자어계로 읽고 시는 관행적으로 고유어로 읽는다.

# 꽃은 ~송이로 센다. 그럼 종이꽃과 종이학은?
정답 : 종이꽃은 ~송이로, 종이학은 ~마리로 센다.

# 고양이예요(○)
고양이에요(×)

국립국어원이 스마트폰용으로 개발한 한국수화사전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가나다전화, 1599-9979)로 걸려 오는 문의전화는 하루 평균 2백 건이 넘는다. 11명의 상담실 직원이 이처럼 숨가쁘게 처리하는 우리말 문의 전화는 연간 5만 6천 건 안팎.

가나다전화는 국민에게 직접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준다는 취지에서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읽기와 쓰기 수준의 질문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문의 수준이 높아져 전문 상담원들조차 애를 먹을 때가 있다고 한다.

'가나다전화'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관한 질문이 64.9퍼센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표준어와 외래어에 관한 내용이 각각 9.7퍼센트와 1.1퍼센트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주요 이용자는 출판, 광고 및 방송 종사자, 국어 교사 등 국어 관련 분야의 사람이 많다. 초·중·고교생의 문의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립국어원은 공무원의 바른 국어사용을 돕기 위해 문의가 잦은 질문 내용 4백여 건을 모아 〈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에 물어보았어요〉라는 책자를 만들어 행정기관 및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도 했다.

국립국어원 김선철 연구관은 "가나다전화는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상담원 확충과 대기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이 스마트폰용으로 개발한 한국수화사전 앱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백 건의 내려받기가 이어지고 있다. 표준수화 9천6백여 개를 담고 있는 한국수화사전을 토대로 만든 앱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수화 정보에는 각 단어의 사전적 정의와 수화동작 설명, 그리고 삽화까지 포함돼 있다. 글과 그림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동영상으로도 수화를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농아인과 가족,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수화 사용자는 6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 국어문화학교 운영… 품격 있는 언어생활 지원

국어 사용의 원리를 설명하고 품격 있는 언어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국어문화학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사 및 교육 전문직은 물론이고 주요 부처 공무원들도 국어문화학교에 개설된 직무연수 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한글맞춤법 이론,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등 총 14개 과목으로 나뉘어 강의가 진행된다. 올해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진행, 전국 3백여 개 공공기관과 군부대 등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한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문화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을 세계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외국인을 위한 초급 한국어와 중급 한국어 교재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8개 국어로 개발해 보급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전 세계 43개국 90개소의 세종학당에서 사용할 세종한국어를 개발하는 등 한국어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G

글·김대현 기자



## 민현식 국립국어원장
# "자모가 철학·과학 아우른 문자는 한글뿐"

얼마 전 KBS가 드라마 제목을 '차칸남자'로 결정해 방송한 적이 있다. 이를 본 국립국어원은 KBS에 개선 권고문을 보냈고 며칠 뒤 드라마 제목을 '착한남자'로 정정해 내보내는 소동이 있었다.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어법에 어긋난 표현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공중파인 KBS까지 어법을 무시한 드라마 제목을 선정할 정도로 우리말에 대한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현식 국립국어원장은 "국민 사이에 맞춤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특히 한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에 대해 그릇된 지식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어법에 맞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표준어 이외에 새로운 말, 전문용어, 방언 등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 정보를 개방적으로 통합, 수집하여 정비하는 한편 사용자들이 편집에도 참여해 개방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전을 만들고자 한다. 그게 바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이다.

2012년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말 7만 항목, 전문용어 34만 항목, 방언 9만 항목이 더해지게 되고 이 내용은 2013년 상반기에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되어 일반 사용자들이 그 내용을 자유롭게 편집하고, 편집한 내용은 검증 단계를 거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반영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SNS 공간에서 원칙을 벗어난 말들이 등장하고 있다.**

짧게 빨리 이용해야 하는 통신의 특성 때문에 줄임 표현이 많이 나왔고 젊은이들이 주 이용자라서 그런지 '얼짱' 등의 창작어도 많다. 우리말의 정체성을 살린 것들이라면 굳이 배척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좋은 우리말을 버리고서 '기분이 업(up)된다' 등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혼용한다든지, 아니면 '므흣하다' 등 우리말을 이상하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민현식 국립국어원장은 "어법에 맞는 우리말 사용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자음자의 모양이 각각 그 소리를 내는 기관의 해부학적인 모양을 본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모음자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모양으로 구성돼 동양철학의 핵심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자모가 철학과 자연과학을 아우르고 있는 문자는 한글뿐이다.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글날은 1991년 국경일과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다가 2005년에 다시 국경일이 되었지만 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날이 갈수록 한글날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것 같다. 2012년 조사에 따르면 한글날이 10월 9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이 64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는 2009년 조사결과인 88퍼센트와 비교할 때 24퍼센트포인트 이상 감소한 수치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함으로써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환기시키고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G

글·김대현 기자

# 뭐든지 다 되는 한글… 한글은 민주주의다

서기 7세기 신라에는 애국심이 강한 두 청년이 있었다. 자신들의 뜨거운 마음을 돌에 새기고 싶었지만 우리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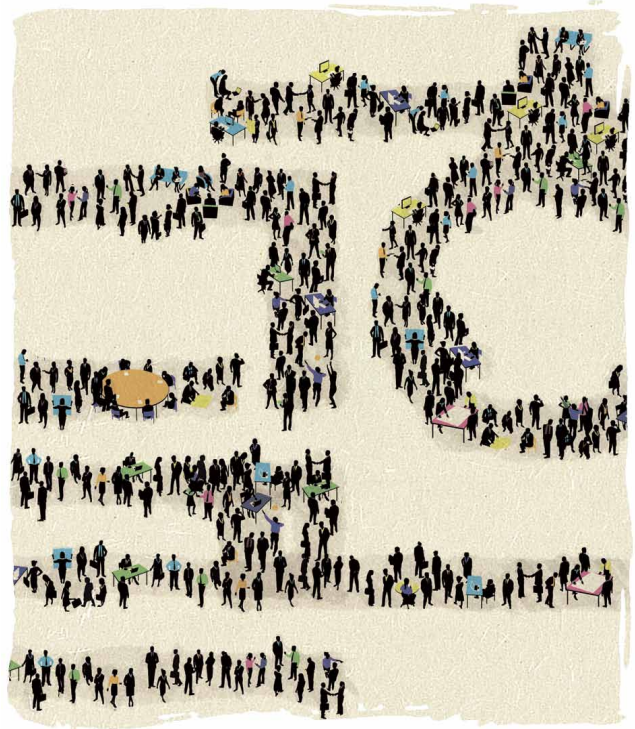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두 사람이 함께 맹세해 기록한다. 하느님 앞에 맹세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도(忠道)를 집지(執持)하고 과실이 없기를 맹서한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임신서기석은 한문이 아닌 신라 말이다. 한문이라면 어순상 '충도집지(忠道執持)'가 아니라 '집지충도(執持忠道)'여야 한다. 두 사람은 용케 어려운 한자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충심을 영원히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한자를 모르는 평민들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글 한 조가리 남기지 못했다. 답답한 세월이 무려 15세기까지 계속되다가 세종이라는 놀라운 왕이 나타나 한글을 창제했고, 비로소 누구든지 자신의 말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16세기 안동에 살던 여인(원이 엄마)은 먼저 간 남편에게 '한글'로 편지를 썼다.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백성을 위한 글자**

한글이 나오기 전까지 한자는 지배층의 전유물이었고, 지배층의 이익을 지켜 주는 요지경이었다. 평민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한자를 습득할 수는 있었겠지만,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한자를 배운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게다가 한자는 몹시 어려운 글자였다. 사람 인(人) 자나 큰 대(大) 자 정도라면 어렵지 않지만, 鬱, 臟, 氎, 鐆, 齉 같은 글자들은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린다. 노신은 "한자가 망하지 않으면 중국이 망한다."라고 절규했고, 지금 중국은 10만 자에 가까운 한자를 버리고 간체자 2천여 자를 쓰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본은 한자의 형태를 간소화해서 50개 정도의 가나문자를 만들었다. 현재는 히라가나 46자, 가다가나 46자, 합해서 92자라 숫자도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은 가나문자만으로는 원활한 의사

일러스트 · 신영훈

소통을 할 수 없다. 한자를 버리자, 로마자를 쓰자 등등 문자개혁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가나문자에 상용한자 2천1백36자를 섞어 쓰는 일한문 혼용의 불편한 문자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過激派が米領事館襲撃に關與か'라는 일본어 문장에서 가나문자는 달랑 3자만 쓰였다. 아, 불편한 가나문자여!

그러나 우리의 한글은 어떤가?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등장했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척척 쓰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쉽다는 한글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도저히 일 때문에 한자를 공부할 짬이 없었던 농상공인들도 한글은 쉽사리 배울 수 있었다.

광복 후 남과 북은 사상적으로 갈라섰지만 양쪽 모두 한글을 대중의 글자로 선택했다. 한글로 공부하고 기술도 익히고 취직도 하고 투표도 했다. 배우기 쉬운 한글은 근로대중에게 어울리는 글자였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었다. G

글 · 정재환 (방송인 ·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 언어폭력…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오늘도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지적과 질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질책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미국 워싱턴대 심리학과 엘마 게이츠 교수는 분노의 침전물이라는 실험을 했다. 욕하고 화를 내는 사람의 침과 웃으면서 나오는 침을 모아서 실험용 쥐에게 투입하는 실험으로, 화를 낸 사람의 침을 주입받은 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일종의 행동이다. 거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날리는 행위이다."라는 영국의 철학자 오스틴(J. L. Austin)의 말처럼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은유하는 실험이다.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횡행하는 곳은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다.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가 넘쳐야 하는 곳이지만, 우리 교육 현장의 언어오염은 심각하다. 학생들만 있는 2시간 동안 고등학교 교실을 관찰해 욕 사용 빈도를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아이들은 평균 26초에 한 번꼴로 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11초마다 욕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들은 상대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속어, 욕설뿐 아니라 자신들만의 은어와 유행어로 자신들만의 언어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소통의 시작은 나의 바른 말에서 이루어진다**

말은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다. 오염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면 관계가 훼손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말은 그 자체로 '힘'을 갖고 있다. 감정 섞인 말과 언어폭력이 범벅된 말은 그 말을 뱉은 사람의 뇌를 공격한다.

어휘력과 인지능력,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기며 다시 언어 폭력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 나쁜 말을 들으면 우리는 신체적 변화와 인지적 각성 상태가 나타나고 다시 감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에게 말을 할 때 감정 섞인 말은 아닌지, 내 중심의 언어는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우리의 말과 글인 한국어와 한글은 과학적이며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이자 그 어떤 언어보다 우수한 과학적인 소통수단이다. 소통의 시작은 나로부터 이루어진다. 나를 향한 소통(자존감),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공감적 능력, 그리고 스피치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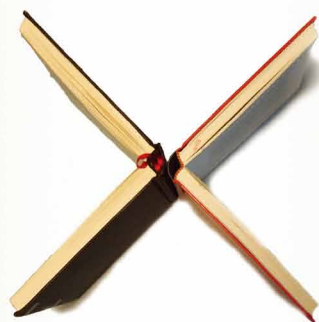
일러스트 · 신영훈

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소통이 가능하다. 내가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과 스피치 능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를 긍정하는 자존감과 감정적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바른 말이 있다. 상대를 이해하는 공감적 능력 역시 내 중심이 아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도 역시 바른 말이 있다.

상대에게 나를 나타내는 스피치 능력의 중심에도 바른 말이 있다. 좋은 스피치는 일방적으로 내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바른 말이 필요하며, 상대와 공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도 바른 말이 필수적이다.

오늘 우리는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상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말, 내 중심의 말, 감정 섞인 말, 은어와 속어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설망어검(舌芒於劍),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는 말이다. 원래는 촌철살인의 날카로운 비판을 말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다른 뜻으로 되새겨볼 만하다. 칼의 상처는 아물면 되지만, 말의 상처는 약도 닿을 수 없는 마음에 남는다. G

김은성 (KBS 아나운서)

기획특집

# 내년 정부예산안 3백42조원 경제 살리고 민생 튼튼히

내년도 나라살림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수와 수출을 지원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도 많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복지도 강화합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해 정책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지출이 늘었지만 재정건전성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경제는 힘차게 되살아나고
서민들의 삶은 보다 편안해지는 2013년을 기대해 봅니다.



일러스트 · 이철원

# 재정 통한 경제활력·민생안정에 초점

## 올해보다 5.3퍼센트 증가한 3백42조5천억… 복지분야 97조로 최다

2013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이를 통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지출보다는 수입이 더 늘었다. 국가채무비율도 더 낮아진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이다.

**주요 분야 예산규모 및 증가율** (단위: 조원)

| 분야 | 2012년 | 증가율(%) | 2013년 |
|---|---|---|---|
| 보건·복지·노동 | 92.6 | 4.8↑ | 97.1 |
| 교육 | 45.5 | 7.9↑ | 49.1 |
| 문화·체육·관광 | 4.6 | 4.9↑ | 4.8 |
| 환경 | 6.0 | 5.8↑ | 6.3 |
| R&D | 16.0 | 5.3↑ | 16.9 |
|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 15.1 | 4.1↑ | 15.7 |
| SOC | 23.1 | 3.6↑ | 23.9 |
| 농림·수산·식품 | 18.1 | 1.2↑ | 18.3 |
| 국방 | 33.0 | 5.1↑ | 34.6 |
| 외교·통일 | 3.9 | 5.0↑ | 4.1 |
| 공공질서·안전 | 14.5 | 3.2↑ | 15.0 |
| 일반공공·행정 | 55.1 | 4.0↑ | 57.3 |
| 지방재정 지원 | - | | 1.3 |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5.3퍼센트 증가한 3백42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출이 늘었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 지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경제회복 등을 통해 내년 재정수입은 지난해보다 8.6퍼센트 불어난 3백73억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97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보다 4.8퍼센트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반공공행정(57조3천억원), 교육(49조1천억원)과 국방(34조6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23조9천억원), 농림·수산·식품(18조3천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예년에 비해 세수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민생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친화적 일자리 10만개 창출

2013년 예산안은 크게 두가지 정책 목표를 두고 편성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이 그것이다.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경제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경기위축으로 인해 자칫 악화될 수 있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다.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이다. 내수와 수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분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69조5천억원에서 78조원으로 늘리고 수출금융과 무역보험 등 무역금융을 30조원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과 지역 SOC 지원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제체질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미래를 위한 '튼튼예산'이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서비스산업, 녹색산업, 신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도 늘리고 소상공인과 섬유, 금형 등 뿌리산업의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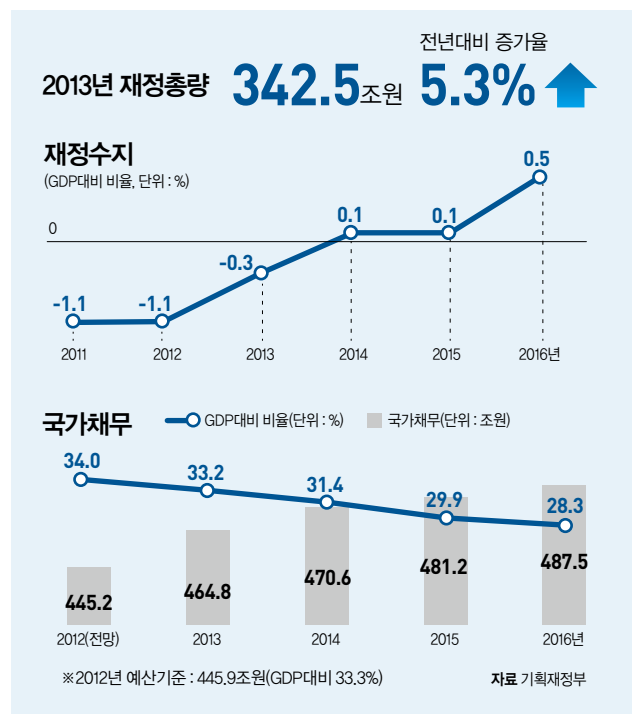
일자리와 복지를 확충해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든든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지원 일자리를 2만5천개 늘리고 10만개의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실업급여와 사회보험료 대상을 넓히는 등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대상별로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 삶의 질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 학생, 장년과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영유아를 위해서는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공공형 및 국공립 어린이집도 추가로 조성한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도 늘린다. 지역아동센터를 추가 지원하고 국가장학금과 든든학자금(ICL)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1만개 확충과 독거노인 돌보미 3만명 충원 등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도 늘려 잡았다.

### 조세부담률은 올해 수준 유지할 듯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등 수혜대상별 복지도 확대한다. 기초수급자를 3만명 추가하고 이행급여(일을 통해 기초수급에서 벗어날 때 지급하는 지원금)와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예산도 9.4퍼센트 확대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과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성폭력 관련 예산은 2천6백31억원에서 4천55억원으로, 학교폭력의 경우는 1천8백49억원에서 2천9백5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재정지출이 불어나지만 그렇다고 재정건전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지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알뜰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지출이 5.3퍼센트 증가한 3백42조5천억원인데 비해 수입은 8.6퍼센트 불어난 3백73조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를 포함한 예산수입은 8.4퍼센트 증가한 2백53조8천억원, 기금수입은 8.9퍼센트 늘어난 1백19조3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34퍼센트에서 33.2퍼센트로 줄이고 2015년엔 20퍼센트대에 진입시키기로 했다.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해 가용자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도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다. 6조7천억원의 재정융자 지출을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총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퍼센트포인트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차보전이란 재정융자 시중은행 융자의 이자 차이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혜자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융자를 받는 대신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고 정부는 재정융자와 시중은행 융자의 이자 차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해 지원효과는 확대하고 재정부담은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액이 늘어나지만 경제회복으로 수입도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8퍼센트로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퍼센트보다 4.8퍼센트포인트 낮았다.

세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고용확대에 힘입어 16.9퍼센트,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 신설 등의 효과로 16.4퍼센트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올해 영업실적 부진으로 5천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G

글·변형주 객원기자

조선DB

2013년 예산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지원,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 내수·수출·지역경제 '3각 지원'에 집중

##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의지 반영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핵심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 예산안 중 특히 '활력예산'으로 분류된 예산 항목은 경기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수출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등 세 분야에 투입되는 '활력예산'을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활성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내수활성화

### 중소기업 정책금융·보증 규모 대폭 확대

정부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 올해보다 8조5천억원 늘어난 78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올해 2조9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과 매출채권보험 같은 금융지원도 올해 66조6천억원에서 내년 74조9천억원까지 늘린다.

맞춤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2백억원 늘어난 5백억원으로 잡았다. 또한 우수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A/S 센터에 1백5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중소기업 A/S 센터에 배정한 25억원의 예산보다 6배 확대된 규모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펀드 규모도 6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늘렸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들 기업에 대한 출자를 통해 대출금리도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로 복귀(U턴)하는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백55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배정하여 베이징 등에 6개의 'U턴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지역을 최대 12곳까지 새로 지정하여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전담관도 기존 32명에서 64명으로 늘린다.

수출지원 강화

### 신흥시장 개척·수출 마케팅 예산 늘려

수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인수 규모를 확대하는 등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2백70조원에서 내년엔 30조원 늘어난 3백조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기금의 출자 규모를 각각 5백억원, 2천5백억원으로 확대했다.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4백53억원에서 6백90억원으로 확대했다.

예비 수출기업 및 수출 유망기업 등에 대해 올해보다 1백45억원 늘어난 4백17억원을 배정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월마트·홈디포·타깃, 독일 에데카 등의 해외 대형매장의 직접 진출을 돕기 위한 예산 1백억원도 새롭게 배정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방식으로 구성한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 예산을 23억원에서 1백10억원으로 늘렸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올해보다 15억원이 늘어난 75억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하고,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3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특허 분쟁에 대비한 판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나 실태조사 등 특허 관련 인프라 구축에는 43억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분쟁대응 지원 예산에는 52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 신성장산업·지역 SOC 투자 예산도 확보

분쟁과 관련한 컨설팅 대상 기업 수는 1백13개사에서 1백67개사로 확대되고, 지적재산권 소송보험 가입비용 지원대상은 30개사에서 65개사로 늘어난다. 그 외에도 우수특허 선점과 지식재산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과 지역산업의 인프라 육성을 지원하는 예산도 상당액 배정했다. 정부는 먼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1조3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키로 했고, 지방교부세 또한 전년대비 2조5천억원 증액(7.6퍼센트)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지역의 신성장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의 문화와 융합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2천2백55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외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의 기반시설 건립이나 산업단지 진입도로·폐수종말처리장 건설에도 1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도로·철도·항만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한다. SOC 투자는 주로 내년에 완공되는 사업을 위주로 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23조9천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는 성산~담양고속도로 등 도로사업에 8조4천억원,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철도 사업에 6조8천억원과 동해안 3단계 설계에 86억원,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착공에 2백억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30대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올해보다 9천억원 늘어난 4조7천억원을 배정해 지역 체감경기를 개선하기로 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예산 배정을 마쳤다. 지역 SOC 투자에는 하천정비·생태하천복원 등 지역생활 인프라와 지방 국립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포함되었다. G 글·이상훈 기자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 구분 | 내용 |
|---|---|
| **내수활성화** | |
| 중소기업지원 확대 | ·중소기업 정책금융 8.5조원 확대<br>·맞춤형 창업 사업화 촉진 |
| 설비투자펀드 조성 | ·설비투자펀드 1조원 확대<br>·산업·기업은행 출자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
| U턴·외국기업 투자 촉진 | ·U턴 기업 국내복귀 지원<br>·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 |
| **수출지원강화** | |
| 무역금융 확대 | ·무역금융 30조원 확대<br>·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마케팅 강화 |
| 중소기업수출역량 강화 | ·해외 대형매장 직접 진출 지원<br>·대·중소 협력방식 무역촉진단 파견 확대 |
| FTA 활용 제고 | ·FTA 컨설팅 및 지역 FTA 센터 지원<br>·국제 특허분쟁 대응 인프라 구축 |
| **지역경제활성화** | |
|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 | ·지방재정 보완에 1.3조원 신규 지원<br>·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인프라 구축 |
| 지역 SOC 투자 강화 | ·SOC 투자 23.9조원 지원<br>·30대 선도프로젝트, 지역생활 인프라 지원 |

자료 기획재정부

# 일자리·맞춤형 복지로 서민생활 개선

##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과 부문 간 격차 완화에도 힘써

정부가 9월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를 통해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든든예산'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며, 부문 간 격차를 완화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 '일'을 통한 소득·복지 증진

**일자리 확충**

- **재정지원 일자리 2.5만명 확대**
  - 청년·여성·노인 등 일자리 56.4→58.9만명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직업훈련 실시

-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 창출**
  - 유망 중소기업 인턴 5만개
  - 글로벌·문화 일자리 2.4만개
  - 지역사회·교육서비스 일자리 2.6만개

- **베이비붐 세대 경력활용 일자리 3배 확대**
  - 베이비붐 세대 적합 일자리 1.5만개
  - 지역 틈새 일자리 확충 1.5만개
  - 베이비붐 세대 전직·재취업 서비스 140억원(신규)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 25% 인상**
  -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수당 월40만원
  - 취업성공시 개인부담 훈련비 전액 환급 155억원(신규)

- **실업급여 및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취약계층 실업급여 지급
  - 65세이상 4만명(신규)
  - 영세자영업자 3.5만명(신규)
  -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월평균임금 125→130만원 이하

- **긴급고용안정 지원 강화**
  -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임금 보전 84억원(신규)
  - 자발적 체불임금 청산 융자 50억원(신규)
  -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월평균임금 170→190만원 이하

**고용구조 개선**

- **기존 일자리 고용연장 구조 확산**
  - 기업의 자율적 고용 연장 533억원
  - 출산·육아 휴직후 계속고용 여건 보장 523억원
  -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이상 계속고용 사업주에게 연 240만원 지원 등

-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
  -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 400개소, –장려금 120억원
  -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 월40→월6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 일을 통한 소득·복지 증진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는 윤모(28·여)씨는 고향인 전남 목포의 대학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했다. 취업 기회를 넓혀볼까 하고 부전공으로 영어영문학까지 전공했으나 2010년 봄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윤씨는 급한 대로 학습지 교사로 일해 보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4개월 만에 그만두었고, 마트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앞날이 막막했던 윤씨는 2010년 말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집단상담 등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은 윤씨는 2011년 1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한 달 뒤 교육서비스 직원을 구하는 회사에 취직했다. 같은 해 4월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벗어났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5~64세 이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체계이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이 내년에는 월 31만6천원에서 40만원으로 25퍼센트 인상된다. 2013년 예산에서 일자리를 통한 소득·복지 증진 예산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013년 예산은 또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와 사회보험료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영세자영업자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한다.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도 늘어난다. 청년·여성·노인 등 일자리가 56만4천명에서 58만9천명으로 2만5천명 확대된다. 청년친화적 일자리도 10만 개 만들어진다.

###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복지

2013년 복지예산은 '맞춤형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회복이 늦어질수록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생애주기별** 내년부터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을 추가한다. 현행 0~2세 전 계층에게 주는 보육비 지원이 내년에는 소득상위 30퍼센트 가구에는 차등 지원된다. 0~2세 자녀를 둔 소득하위 70퍼센트 가구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누리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퍼센트의 3~5세 유아들에게도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규모를 5천억원 늘려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준다. 국가장학금Ⅰ유형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3분위에서 7분위로 확대한다.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2배 정도 늘어난 7만명으로 확대한다. 든든학자금(ICL) 대출액도 내년엔 3천4백24억원 늘린 1조9천4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립대 기숙사 건립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국·공유지에 2백12억원을 들여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연합기숙사'를 짓는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2조5천억원 확충한다. 수요가 많은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을 올해 8만 호에서 내년 9만5천 호로 늘린다. 노인인구의 증가세를 감안해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과 연금액을 확대한다.

**수혜대상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편과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높여 3만명을 새롭게 기초수급자로 보호한다. 일을 통한 탈(脫)수급 시 지원하는 이행급여를 1만 가구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을 올해보다 2배가량 늘린다. 긴급복지 수급대상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백퍼센트에서 1백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한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월 2만원 인상한다.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를 지금보다 7백 개 늘리고 참여기간도 연중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일반기업 취업을 촉진하고자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을 4백87억원에서 7백28억원으로 늘린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관련 예산을 9.4퍼센트 확대한다. 관련 사업 규모와 지원센터 수를 늘리는 한편,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50명을 선발해 결혼이민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초기 정착기본금을 1인당 6백만원에서 내년엔 7백만원으로 1백만원 올린다.

65세 이상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넓혀 부추, 숭어, 멍게 등 9개 품목을 추가한다.

성폭력,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신속대처–사후조치'도 강화된다. 성폭력 예방 등 관련 예산이 2천6백31억원에서 4천55억원으로 늘어나고, 학교폭력 예방 등 관련 예산은 1천8백49억원에서 2천9백57억원으로 증액된다. G

글·박경아 기자

하늘에서 내려다 본 제주 한경면의 풍력단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녹색성장 21조3천억원, 녹색기술 R&D에 3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확보한다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취약부문 체질개선 강화

미래를 대비한 투자가 확대된다. 위기 이후 재편될 세계경제 구도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튼튼예산'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취약 부문의 체질 개선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미래를 선도할 기술개발 지원과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기초원천 분야에 전체 R&D예산의 50퍼센트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부문의 R&D에는 3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선도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R&D 기술 사업화 지원도 늘린다. 2조3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개발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R&D 투자 확대는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녹색산업과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투자에 21조3천억원, 녹색기술 R&D에 3조6천억원, 저탄소 녹색교통망 확충을 위한 철도투자에 6조8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저탄소 녹색산업 지원 대폭 확대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환경기술 실증화 단지를 조성해 환경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산업 융자와 수출기반육성 지원 예산을 25퍼센트 이상 확대한다.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 개발을 지원한다. 석유가스공사와 광물공사에 대한 출자를 통해 셰일가스 개발, UAE 등 유망 유전광구, 전략광물 확보 등 해외자원 개발을 지원한다. 또 전력 부하관리 지원액을 6백66억원에서 2천5백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력 수요관리 재원을 확충해 전력수급을 안정화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미래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보증과 출자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1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 중소기업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펀드 출자와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케이팝(K-Pop) 전용공연장(BTO 방식), HD드라마타운 등 대중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뮤지컬 등 기초예술 공연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유망산업 중 하나인 제약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글로벌 제약 인수합병(M&A) 펀드에 1천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고급 제약 기술경영 인력 양성 지원도 늘린다.

### 소상공인 지원 3조3천억원 증액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미래 성장을 위해 인재는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BK21(Brain Korea 21)과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의 후속사업에 대한 지원을 2천45억원에서 2천9백14억원으로 늘리고 박사양성 프로젝트 지원 대상을 5백명에서 7백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역량 제고 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산학협력 선도대학(51개교) 지원을 확대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선취업 후진학' 지원 예산은 2.5배 확대하고 전문대 지원을 강화해 산업계 현장 맞춤형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전통·취약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금형과 용접 등 뿌리산업을 첨단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하고 섬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섬유와 디자인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융자와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15조7천5백억원으로 3조3천억원 늘렸다. 소상공인들의 공동협업화 사업도 신설했다.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5년까지 2만명이다. 교육 및 컨설팅,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도 확대한다. '문화관광형 시장'을 2015년까지 1백 개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축산·원예 경쟁력 강화 등 FTA보완대책 지원을 2조1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 전략품목 육성, 첨단온실 신축, 글로벌 케이푸드(K-Food)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천2백억원 규모의 사료직거래 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 구분 | 항목 | 규모 |
|---|---|---|
| 미래 성장동력 확충 | •기초·원천분야 R&D 투자 비중 | 50% 이상 |
| | •신성장동력 R&D | 3.5조원 |
| | •녹색기술 R&D | 3.6조원 |
| | •유망서비스 중소기업 특별보증 | 1조원(신규) |
| | •예술인 취업교육·창작준비 | 2,400명(신규) |
| | •글로벌 제약 M&A 펀드 | 1,000억원(신규) |
| 글로벌 인재 양성 | •대학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 3,130억원 |
| | •대학 교육역량 강화 | 2,717억원 |
|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2,184억원 |
| | •선취업 후진학 지원 | 2.5배 확대 |
| | •국립대학 운영성과 목표제 | 100억원(신규) |
| |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 2,330억원 |
| 전통·취약부문 체질 강화 | •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첨단화 | 1,000개 기업 |
| | •소상공인 정책금융(융자·보증) | 15.8조원 |
| | •소상공인 공동협업화 | 2만명(13~15년) |
| | •FTA 보완 대책 | 2.5조원 |
| | •모기지론 금리 인하 | 최대 1%p |
| | •햇살론 금리 인하 | 10~13%→8~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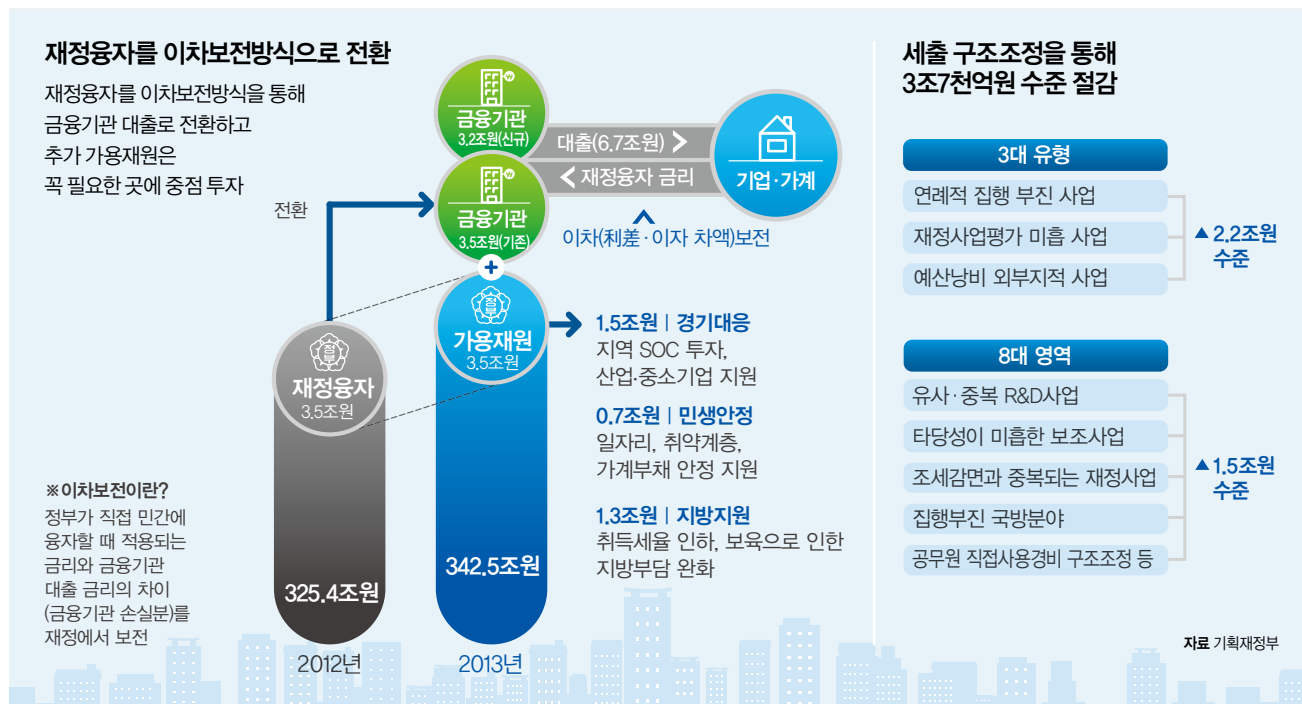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 농어업 경쟁력 강화 위해 지원 늘려

어업인을 위해 해삼과 전복을 대량으로 양식할 수 있는 '양식섬'을 조성하는 등 고부가 수산자원을 집중 육성한다. 또 어선원·어선보험과 수산금융 지원을 확대해 보다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가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금도 늘렸다.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1천2백억원을 주택금융공사에 신규 출자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이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기지론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금리는 최대 1퍼센트 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햇살론(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저리 대출상품)에도 출연해 금리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G

글·변형주 객원기자

# ‘군살’ 빼고 경제 살릴 분야에 집중투자

##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 조기 복원 목표

세계적으로 경기 상황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되는 2013년.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시키고,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세수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경제활력을 찾는 ‘알뜰 예산’을 편성했다.

새로 편성된 2013년 정부 예산안은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재정 총량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에 복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2013년 관리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고,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하며 ▲재원배분 측면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에 지원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정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재정수입이 8.6퍼센트, 재정지출은 5.3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재정수지 개선 노력에 따라 2011년의 34.0퍼센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9월 24일 “2013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 무조건 곳간을 푸는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비전통적인 방식을 시도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균형재정 기조 위에 재정 역할 확대 모색

김 차관은 “내년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와 예산안 편성 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올해 수준의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세입감소 상황을 고려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 차관은 “GDP 대비 내년도 재정수지를 균형재정 기조의 범위 내인 -0.3퍼센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총지출을 확대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5.3퍼센트로, 지난해 발표된 2011~2015년 재정 운용 계획상의 2013년 증가율 5.1퍼센트보다 확대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융자를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고, 정부는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으로 재정 융자지출을 전환하는 방향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3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민간융자로 전환, 정부는 민간융자 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차이를 지원해 준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신규 지원금 3조2천억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집행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분야나 중복사업 분야를 재정비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출 여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김 차관은 “이 같은 재정운용 방식 개선을 통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5.3퍼센트에서 7.3퍼센트로 확대되는 효과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사업 선별 축소

‘군살’을 빼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또 한 가지 재정운용 방식은 ‘세출 구조조정’이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집행률로 평가해 각각 10~30퍼센트 수준으로 감축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사업을 평가해서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10퍼센트 이상 감액하고 ▲감사원, 국회, 언론 등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한 사업 중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총 2조2천억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R&D), ODA(공적개발원조 혹은 정부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방경영 효율화, 인건비 및 기본경비 효율화, 전달체계 효율화, 보조사업비, 재정융자사업비, 정책연구용역비 등 8대 영역을 조정해 총 1조5천억원가량을 절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R&D 투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선진기술 추격형에서 기술을 이끄는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성장과 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에너지 기술과 같은 성장 전략 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까지 3천 개 이상의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균형발전 등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의료·교육·문화·관광 등의 콘텐츠·서비스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업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항만, 산업단지, 도로 등 국가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명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한정된 재정으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국가채무 비율 33.2퍼센트로 낮아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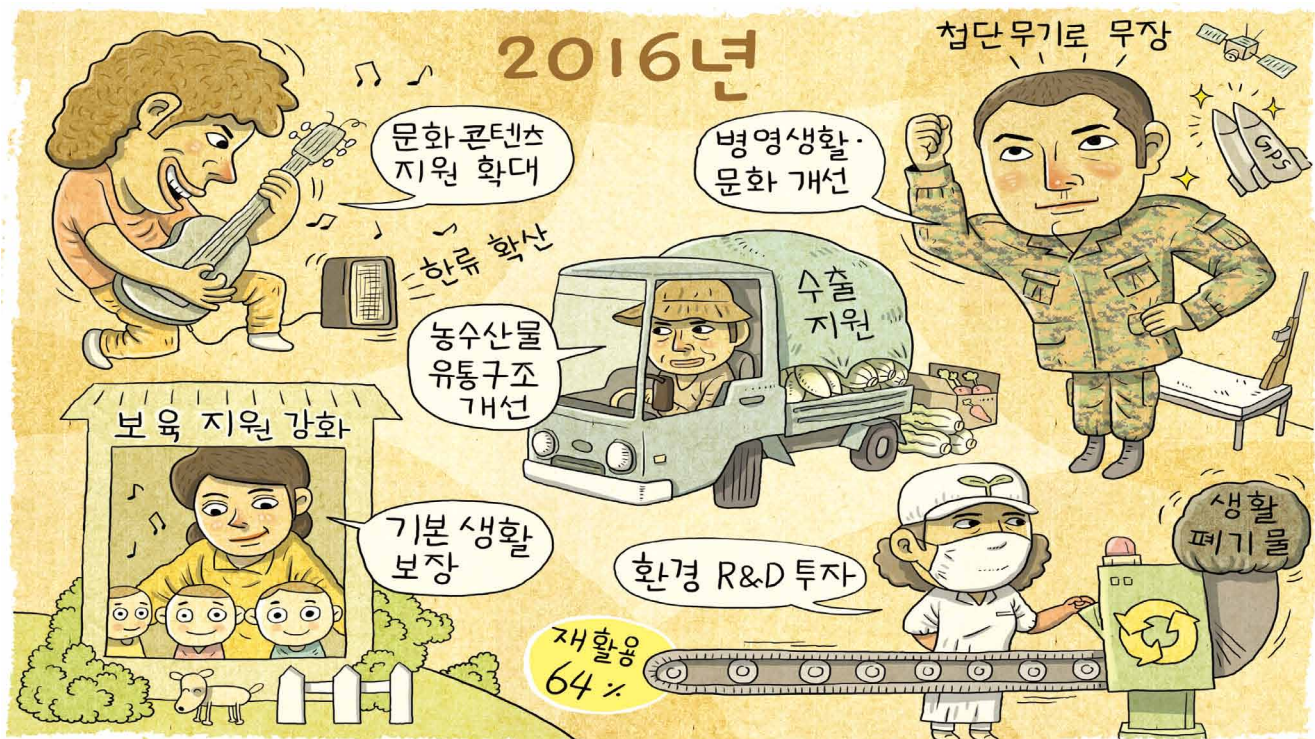
정부는 이 밖에 ▲신약개발, 태양광 등 유사하거나 중복된 R&D 사업을 조정하고 ▲보조사업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 내지 감축 또는 변경하며 ▲조세감면과 재정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융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방시설 등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2013년 말까지 집행 여부가 불확실한 방위력 개선 사업은 필수소요 위주로 반영하며 ▲공무원 직접사용 경비를 구조조정하고 ▲예산낭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정책연구용역비를 축소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국가 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2년 전망치 34퍼센트보다 0.8퍼센트포인트 감소한 33.2퍼센트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G

글·이범진 기자

# 재정건전화로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 맞춤형 복지 등 '12가지 분야별 투자방향' 제시

정부가 지난 9월 25일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자원배분 방향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충 ▲일을 통한 소득·복지 향상과 맞춤형 복지 지원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2가지 분야별 투자방향'을 제시했다.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자원배분 방향의 첫번째 항목은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기술혁신과 창조를 통해 신산업 신시장 기회를 선점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SOC, 농업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예산을 우선 배분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통해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보육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문화복지 실현 및 환경서비스 질 개선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대비 핵심 능력 확보 ▲장병 복지 향상 및 병영 문화 개선에 중점 투자하며 ▲기상이변, 사회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기반을 확충하고 ▲선진 일류 국가를 실현하는 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D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창의형 성장기반'을 확립할 예정이다. 2016년까지 중견기업 3천 개 이상을 확보하고 소상공인·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동반성장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0~2세 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특징이다. 학교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신고시스템 등에 관한 인프라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아울러 재해·재난,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해 안전한 선진국형 생활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국격에 맞춰 국제기여 확대, 외교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해 명실상부 일류 국가 대열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6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정부가 발표한 12가지 분야별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를 대략 엿볼 수 있다.

### 1 보건·복지·고용
### 생애주기별 복지안전망·자립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복지 안전망이 확충되고 일을 통한 자립지원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지원,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본생활이 보장된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2012년 3백86만명에서 2016년 4백53만명으로 증가된다. 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직업훈련, 사회보험료, 근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된다. 이를 통해 고용률(15~64세)은 2012년 64.1퍼센트에서 2016년 67.1퍼센트로 높아질 전망이다.

아동·보육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공공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가 2012년 19만2천명에서 2016년 40만명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통합망 고도화, 복지서비스 사례관리 강화 등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복지서비스 누락·중복을 예방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12년 11개 부처, 1백98개가 참여하는 사회복지통합망 연계사업을 2013년 16개 부처, 2백93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2 교육
### 든든학자금 대출액 1조9천억원으로 늘려

국가장학금과 든든학자금(ICL)을 지속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적 혜택이 높아지도록 제도개편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현재 1조5천1백91억원인 든든학자금 대출액은 2016년 1조9천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의 방과후학교 지원도 확대된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입학사정관제 정착, 대학의 구조개혁 상시화 등 대학의 체질개선도 추진된다. 하위 15% 대학 구조개혁 컨설팅, 대학운영성과 목표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등이 실시된다.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 2011~2015년 계획 | 2012~2016년 계획 |
|---|---|---|
| 경제 성장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완만한 성장세 |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성장률 하향 가능성 |
| 수입 지출 | 재정수입 증가율 7.2%<br>재정지출 증가율 4.8% | 재정수입 증가율 6.3%<br>재정지출 증가율 4.6% |
| 재정 목표 | 2013년 균형재정 회복<br>2014년 이후 흑자기조 유지 | 균형재정 기조 유지<br>2014년 이후 흑자규모 확대 |

(단위 : 조원, %)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재정수입**<br>(증가율) | **343.5**<br>(9.3) | **373.1**<br>(8.6) | **396.1**<br>(6.2) | **415.2**<br>(4.8) | **439.1**<br>(5.7) |
| **재정지출**<br>(증가율) | **325.4**<br>(5.3) | **342.5**<br>(5.3) | **357.5**<br>(4.4) | **373.1**<br>(4.4) | **389.7**<br>(4.4) |
| **관리재정수지**<br>(GDP 대비) | **−14.3**<br>−(1.1) | **−4.8**<br>−(0.3) | **1.0**<br>(0.1) | **2.2**<br>(0.1) | **8.3**<br>(0.5) |
| **통합재정수지**<br>(GDP 대비) | **18.1**<br>(1.4) | **30.6**<br>(2.2) | **38.6**<br>(2.6) | **42.1**<br>(2.6) | **49.4**<br>(2.9) |
| **국가채무**<br>(GDP 대비) | **445.2***<br>(34.0*) | **464.8**<br>(33.2) | **470.6**<br>(31.4) | **481.2**<br>(29.9) | **487.5**<br>(28.3) |
| **조세부담률**<br>국민부담률 | **19.8**<br>26.0 | **19.8**<br>26.1 | **20.2**<br>26.6 | **20.4**<br>26.8 | **20.5**<br>27.0 |

*2012년 전망치 기준(2012년 예산기준은 445.9조원, 33.3%)

**자료** 기획재정부

아울러 고졸자의 취업 문화를 정착하고 취업 후에도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확대, 방송대 후진학 체제 및 사이버 대학 확충 등이 시행된다.

### 3 문화·체육·관광
### 문화산업 자립과 관광·체육 기반 확충

기초예술과 대중문화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한류확산,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K팝, 인디음악·패션 등 대중문화산업 성장기반 확충, 공연예술 창작 및 재공연 지원으로 문화산업의 자립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부문에서 선제적 투자 및 장르별 제작·유통 지원도 확대된다.

외래 관광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관광호텔, 펜션 등 주요 숙박시설 확충자금에 대한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의료관광·MICE 산업(미팅, 전시 등의 산업) 지원,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이렇게 될 경우 2012년 1천1백만명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6년 1천5백만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원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 4 환경
### 환경산업·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환경개선 인프라를 구축해 '좋은 물 달성률'이 82퍼센트(2012년)에서 85퍼센트(2016년)로 올라가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도 62퍼센트에서 64퍼센트(2016년)로 높아지게 된다. 환경 R&D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 녹색소비 촉진, 환경산업 실증화 단지 조성, 환경산업 융자도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5조원인 환경산업체 해외수출액은 2016년 13조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 위해요인 민감계층'(농어민, 어린이 등)에 대한 안전이 강화된다. 생태우수지역 보전·복원 및 선진 생물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 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 5 R&D
### 창조·융합·선도적 R&D 투자 지속 확대

창조·융합·선도적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게 된다. 성장동력, 녹색기술 및 첨단융합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우주발사체, 가속기 등 거대과학 분야를 차질없이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나로호 3차 발사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완료된다.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반 R&D 투자 역시 확대된다. 공공기반 R&D 투자에는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투자가 포함된다.

## 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체질 개선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취약 부문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융합, 녹색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조성 등 동반성장 기조가 확산된다. 이를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동반 해외진출 지원 등 동반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진기금 내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해외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에너지 복지서비스 확충을 지원한다.

뉴시스

국가기간망, 항만, 산업단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된다. 사진은 완공 전 인천대교 건설현장.

## 7 농림·수산·식품
### 유통구조 개선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이 실시된다.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비한 식량 공급기반이 확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비축·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직거래 활성화, 공동출하 확대 등 유통구조 효율화 등이 꾀해진다. 식품산업의 고부가, 전략산업화 및 농수산물 수출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1백억 달러인 농·식품 수출액은 2016년 1백80억 달러로 증가된다.

## 8 SOC
### 국가기간망·항만 등 경쟁력 더욱 높여

국가기간망, 항만, 산업단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충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연장 길이가 올 4천48킬로미터에서 2016년 4천6백32킬로미터로 늘어나며 전국항만 물동량 처리목표도 13억6천만 톤에서 2016년 15억9천만 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저탄소 녹색교통을 확충하고 4대강사업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하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국내 주택·건설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실시된다.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남미·아프리카 등 해외 건설·플랜트 신시장 발굴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2016년 해외건설수주목표는 현재 7백억 달러에서 2016년 1천2백억 달러로 증가될 전망이다.

## 9 국방
### 핵심전력 확보·현존전력 극대화에 초점

북한의 비대칭 위협 및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핵심전력 확보 및 현존전력 극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합C4I체계 구축, 다목적 실용위성, GPS 유도폭탄, 차세대 전투기 등이 확보된다. 또 병력 중심의 양적 군 구조를 첨단무기로 무장한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사병봉급 인상, 피복·급식 등 병영생활 기본여건 개선으로 장병 복지 향상 및 병영문화도 개선된다.

## 10 외교·통일
### 한·미 전략동맹 등 외교환경 급변에 대응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대응해 한·미 전략동맹 등 전통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외교관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다자관계 협력, 한반도 평화 조성 등도 지속 추진된다. 특히 국제사회 역할 제고를 위해 브랜드 ODA 중심으로 확대된다. 효율적인 ODA 지원을 위해 개발컨설팅을 확대하고 인력 파견을 통해 해외 일자리 창출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남북 여건변화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인당 정착 기본금을 6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2하나원을 활용하여 요양보호사 등 직업훈련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 11 공공질서·안전
### 재해예방 투자·공공질서 안전조치 구축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기상 이변에 대비한 재해예방투자와 학교폭력,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 범죄 대응강화 등이 핵심이다. 불법조업 근절 및 영해 수호를 위한 해상전력 강화를 위해 2016년까지 36척의 대형함정을 보유할 계획이다. 또 사법 선진화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및 전자소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대상재판은 올해 5백13건에서 2016년 3천2백80건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 12 일반공공행정
### 지방이전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 안정화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 안정화 지원을 꾀한다. 또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주택 구입자금 금리 인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통해 장기·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한다. 현재 6.2퍼센트에서 2016년 30퍼센트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무주택 서민이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기지론을 지속 공급한다.

세종청사 및 혁신도시 이전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및 미래형 전자정부 구축 추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G

글·김남성 기자

##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건전재정은 외부충격 이겨낼 최후 보루"

2013년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일부 언론은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내년 예산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기획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13년 예산 재정수지 -0.3퍼센트는 EU가 균형재정으로 인정하는 범위"라며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정한 경기대응 역할도 수행 가능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상영 기자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적정한 경기대응 역할도 수행하도록 재정지출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내년도 관리대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퍼센트(약 5조원) 수준이며 이는 대외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이나 국제기준으로도 ±0.3퍼센트를 균형재정 범위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상충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목표와 가치를 조화시키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가장 우선시 했던 점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3퍼센트 증가한 3백42조 5천억원 규모지만 재정융자지출 6조7천억원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퍼센트 포인트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균형재정 혹은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요.**

"재정이라는 것은 '경제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경제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는 원천입니다. 재정이 건전해야 글로벌 경제위기 시에 선제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건전재정은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죠. 내년 예산은 대외적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실제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균형재정을 이루는 시점은 2014년입니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5.3퍼센트로 설정됐습니다. 현재의 경제 여건상 세입을 확충하기가 어려울 텐데 지출증가에 걸림돌은 없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성해 융자를 시행하던 재정융자 사업 일부를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융자 금리와 민간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금융기관에 보전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출은 줄이고 기존의 재정융자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는 민간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활용해서 재정의 외연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통하여 6조7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생겼고 이를 경기대응·민생안정·지방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중점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4퍼센트로 예상한 것은 지나친 낙관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경제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경기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데 경제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내년에 3퍼센트 후반~4퍼센트 내외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4퍼센트로 잡았다고 해서 내년의 경제상황을 낙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경제성장률이 4퍼센트이고 여기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지 분야 총지출 증가율이 감소했는데, 이는 복지의 후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복지지출 증가율이 감소했다는 주장은 일종의 착시현상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서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은 4.8퍼센트입니다. 총지출 증가율 5.3퍼센트 대비 0.5퍼센트포인트 낮은 것이죠. 그래서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한 주택구매 등 융자금 5.5조원을 포함하면 실제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10.8퍼센트에 이릅니다. 이는 내년의 실제 총지출 증가율 7.3퍼센트보다 3.5퍼센트 높은 수준입니다."

**정치권에서 일부 복지예산에 대해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정부의 동의를 받아서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안은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해 다음 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적 시각이 있고 그를 통해 국가신용등급과 각종 국가지표가 매겨집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대외적 시각과 우리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내년에는 민간 고용시장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0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율은 8.6퍼센트로 2009년 추경편성 시를 제외하면 정부안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청년,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59만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2만5천개 확대된 규모입니다.

또 '일하는 복지' 구현을 위해 구직자들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생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안전망'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부터는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매달 4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게 되고, 65세 이상 구직자나 영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타 내년 예산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

"서비스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펀드 출자라든가 대중문화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한류나 K-팝 열풍이 이어지려면 문화의 저변확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일부 문화·예술인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인의 취업교육이나 창작준비 지원 사업, 그리고 서울 홍대 부근 인디밴드 연습장 건립 등에 예산을 반영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초 예술분야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예산실이 갑(甲)이란 자세로 일하면 소통이 될 리가 없겠죠. 예산실이 중심을 잡되 이해관계자와 많은 대화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권의 목소리는 광의의 개념에서 국민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정치권의 목소리도 잘 듣고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언론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내년 예산안이 지향한 두 가지 가치, 즉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 중 어느 한쪽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내년 예산안에 대해 다소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것은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 두 부분에서 그만큼 균형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G

글·이상훈 기자

내년
예산스타일♪

대학생,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내년 예산스타일~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늘려주는 예산!
5천억원↑

'연3.9%'
든든학자금 늘려주는 예산!
30만명 혜택

'월 19만원'
연합기숙사 지어주는 예산!
그런 감동 있는 예산
3천명 수용!

나는 취준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는 취준생~
훈련참여수당
월 40만원 받는 취준생~
현장 맞춤형 인재가 될
취준생~

멋진 취준생~

아름다워
자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지금부터 갈 때까지
해보자!

빰!
내년 예산
스타일!

내 집 장만
김여사

아! 여사님 오셨습니까.
하이 헬로!
집 문제!
하우스프러블럼 좀
상의하러 왔어~

아네 여사님.
무슨 문제라도...
임대형 보금자리주택 말야~
늘.려.줘.

네? 보금자리
주택은 이미...
적어. 적어도
너~~~무 적어. 늘.려.줘.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음, 좋습니다!
내년부터 보금자리 임대형
주택을 1.5만채 늘려서
9.5만채 공급할게요.
됐죠?

하나 더!
또요??!

지금 화내는 거야?
물어! 브라우니 물어!
알겠어요
뭔데요ㅠㅠ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말야.
그것도 부족해.
늘.려.줘.

아! 안 그래도 내년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2.5조원으로 늘리고요~
전세자금도 1.5조원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머! 정말?
너~~~~무 기특하네?
좋아! 이제 집 걱정
스탑~할 수 있겠네.
땡큐베리마치♥

**자료** 기획재정부

# 재정건전성 유지할 안전판 구축하자

## 내년 예산안은 재정건전화 · 경기부양 조화 노력 보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겠지만,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지출규모는 줄이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화두는 정부가 약속한 재정건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지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감세 및 지출확대에 의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2009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1퍼센트에 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1퍼센트에서 33.8퍼센트로 급증하는 등 국가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해까지 정책강도를 높여 왔다.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09년 9월)에서 재정정책 기조를 경제위기 극복에서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2013~2014년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양호한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균형재정 목표 달성 때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퍼센트포인트 낮게 유지하는 일시적 재정준칙(fiscal rule)을 2010년 9월 도입하고, 1년 뒤인 지난해 9월 재정균형 2013년 조기달성을 천명하는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강화시켰다.

### 경기회복 지연에 일부선 재정확대 주장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상황이 악화되더니 올해 들어서도 당초 예상과 달리 경기회복이 계속 지연되자, 일부에서는 재정확대에 의한 경기부양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9월 말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4퍼센트대 중반 정도는 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지난해 말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되자 3.7퍼센트로 하향 조정되었다.

올해 들어서도 정부의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6월 28일)에서 3.3퍼센트로 또다시 하향 조정되었고, 국제기구와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도 2.5~3.3퍼센트 정도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상승하겠지만 3.4~4.0퍼센트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여야간 논란이 됐던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는데, 그 규모가 1차(6월 28일) 8조5천억원, 2차(9월 10일) 5조9천억원에 달한다.

2013년 예산안 및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2년 9월)에서도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겠지만,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지출규모는 줄이지 않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당초 계획보다 국세수입이 7조8천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수입이 2조6천억원 감소하는데, 재정지출은 6천억원 증가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5조원 정도 악화된다.

이에 균형재정 달성시기가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미뤄졌다.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어 건전재정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전략적 대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건전화 정책 기조가 크게 훼손된 것은 아니다. 유럽 재정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일보 후퇴하는 것일 뿐, 아직까지는 2009년 당초 정부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때 설정했던 2013~2014년 재정수지 균형은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경제상황이 양호했던 작년까지 재정건전화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다소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수치로 보자면, 2010년 및 2011년에 재정적자 목표를 17조1천억원 및 11조6천억원 정도 초과 달성하여, 2009년에 2012년 말 국가채무가 4백74조7천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4백45조2천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재정융자 지출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마련한 6조7천억원과 더불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신흥시장 개척 지원, 수출 마케팅 강화, 지역생활 인프라 및 지방대학 시설투자 등 내수 활성화, 수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지원과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등 '민생안정'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그러나 내년도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할 전망이므로 향후 재정건전화 정책기조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부진한 금년도 경제실적이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국세수입 목표미달 사태를 초래했는데, 시차를 두고 내년도 조세수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전경.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통일에 대비해 국가채무의 중장기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25퍼센트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저출산 · 고령화, 경제위기, 통일대비 등 미래 재정위험에 따른 중장기 재정전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복지지출 확대 요구도 거세다. 특히 금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GDP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어 예산상의 계획치 33.3퍼센트를 크게 상회하는 34.0퍼센트에 달해 사상 최고치였던 2011년 수치와 동일해질 것이다. 혹시 신정부 출범 이후 재정규율이 다소 느슨해지기라도 한다면 재정건전화 추세가 크게 꺾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전망 시스템화 필요

이에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재정정책의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재정제도를 강화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적 안전판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재정준칙을 중심으로 총량적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국가채무비율의 하락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국제적인 권고치에 경제위기 대비 및 통일 초기비용 등 우리나라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국가채무의 중장기 목표를 GDP의 25퍼센트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또 세출 구조조정에서는 주요 선진국처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선거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검증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치적 예산순환' 방지에도 노력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복지확대, 경제위기, 통일비용 등 미래 재정위험에 따른 재정부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부채, 연금충당 부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부문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글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지난 8월 베이징국제도서전에서 중국인 관람객들이 한국관 부스에 전시된 책들을 살펴보고 있다.

# 드라마·K팝… 이젠 K북으로 '출판한류'

##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발표… 도서구입 세제혜택 추진

전 세계 30여 개 나라에서 번역 출간된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한국 서적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작이다. 〈엄마를 부탁해〉에 대한 해외의 뜨거운 관심은 드라마와 K팝에 이어 K북도 한류열풍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문제는 출판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국내 출판산업 기반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제3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출판 한류'의 기반조성을 위해 '출판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정부가 출판산업 육성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26일 글로벌 출판콘텐츠 문화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출판콘텐츠 경쟁력 강화 ▲선진유통환경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5대 정책과제와 23개 세부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그동안 국내 출판산업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에 반해 전자출판 시장은 큰 성장세를 보여왔다. 신간 발행부수는 2010년 1억2백만 부에서 지난해 1억 부로 약 2.4퍼센트 감소했다. 평균 발행부수 역시 2010년 2천6백41부에서 지난해 2천5백7부로 약 5.1퍼센트 줄어들었다. 반면, 전자출판시장은 지난해 2억8천만 달러(약 3천1백억원)에서 2015년 4억 달러(4천4백80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청소년 대상 '북 토큰' 제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박형동 과장은 "이번 계획은 콘텐츠로서 출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종이책 중심의 출판산업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변화하는 출판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책을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가구별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성인독서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성인독서율(1년간 1권 이상의 책을 읽는 사람의 비율)은 66퍼센트로 지난 1994년(86퍼센트)에 비해 20퍼센트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북 토큰' 제도도 신설된다. 영국의 경우, 1998년부터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 맞춰 전국 초·중·고교생에게 1파운드짜리 북 토큰을 지급하며 독서를 장려하고 있다. 도서 기증자와 도서 수요자를 엮는 '책 나눔 센터(가칭)'도 설립할 계획이다. 점자책·전자책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출판물을 제공하는 사업도 병행된다.

또 급변하는 도서유통 구조에서의 도서유통 과정과 가격 관련 실태를 조사, 분석해 건전한 도서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점차 줄고 있는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의 서점은 지난 2005년 총 2천1백3개에서 2011년 말 현재 1천7백23개로 급감했다. 6년 만에 3백80개 서점이 문을 닫은 것이다.

### 우수 출판기획·원고 공모 지원하기로

우수 출판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판문화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우수 출판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 출판기획과 우수 원고를 공모, 지원한다. 예컨대 동서양 고전과 한국학 관련 외국어 도서의 경우 출판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기업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출판메세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전자 출판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전자책 콘텐츠 공모전, 우수전자책 1만 종 제작 지원,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구축을 추진한다. 전자책 형식다중화(OSMF) 제작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전자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법복제를 추적, 차단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출판 전문인 양성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국내 대학들은 출판 관련 학과를 통폐합하는 경향이 강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판대학원대학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출판한류'를 위한 기반도 조성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출판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해 글로벌 출판시장 정보 제공, 저작권 담당자 교육, 중소 출판사의 수출 실무 등을 지원한다. 언어권·장르별·분야별로 번역 전문인력 시스템도 구축한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의 출판물을 해외시장에 홍보하기 위한 비영리기구(BIEF)를 만들어 출판산업을 적극 육성해 왔다. 드라마와 K팝 등 이미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문화콘텐츠와 K북을 연계한 홍보전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파주 출판단지는 한국 출판산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아시아 출판교류 허브로 육성하고, 해외 주요 도서전 참가를 통한 수출 네트워크 구축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도서전 상설 조직위원회가 가동된다.

출판문화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출판산업 통계, 출판시장 동향 분석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출판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Nielsen BookScan을 통해 매주 시장의 동향을 출판 종사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BookNet이라는 종합통계시스템을 운용, 서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다.

### 출판산업 정보 제공할 종합통계시스템 구축

이번 계획에는 총 2천37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의 출판산업 육성 정책은 앞서 추진된 파주출판단지 조성사업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파주출판단지는 2011년 1조7천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5년에는 약 2조7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에는 파주가 아시아 지식문화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미디어정책국장은 "K팝과 K스타일이 한류를 선도했다면, 이제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가치와 정신이 담긴 K북으로 이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출판 한류의 확산은 글로벌 문화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대현 기자

# 조선의 4번 타자! 일본 홈런왕 해보자

## 이대호, 지난 시즌 홈런왕 나카무라와 각축… 타점왕은 굳혀

이대호(30)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성공적으로 데뷔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국의 롯데 자이언츠에서 11년을 뛰고 올해 오릭스 버팔로스 유니폼을 입은 그의 성적은 단연 팀 내에서 독보적이다. 비록 팀의 성적은 바닥권을 치고 있지만 이대호의 방망이 실력은 일본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연합

이대호는 지난 9월 26일 현재 오릭스 선수 중 유일하게 팀이 치른 전 경기(1백37경기)에 출전했다. 1루수 수비를 하지 않고 지명타자로 나선 적은 있지만 한 경기도 거르지 않고 4번 자리를 지켰다. 타점(87개)은 퍼시픽리그 전체 1위이다. 세이부 라이온스의 나카무라 다케야(77타점)를 멀찍이 따돌렸다. 타점왕 자리는 이번이 없는 한 굳혔다고 봐도 좋다.

홈런(23개)은 리그 2위. 이대호는 지난 9월 26일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벌인 홈 경기에서 1회 2점 선제 결승 홈런을 터뜨려 팀을 12연패의 수렁에서 구해냈다. 퍼시픽 리그 홈런 선두는 세이부의 나카무라(25개)이다. 나카무라는 지난 시즌 48개의 홈런으로 홈런 1위를 차지했으며, 앞선 3년간 1백21개의 대포를 터뜨린 일본의 대표적인 거포이다.

이대호의 시즌 타율(0.289)은 퍼시픽 리그 8위. 3할을 넘긴 적도 있었는데, 시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조금 떨어졌다. 최다안타 4위(1백44개), 장타율 2위(0.479), 출루율 4위(0.371) 등 도루를 제외한 타격 전 부문에서 리그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어느 팀 유니폼을 입더라도 간판타자로 뛰기에 충분하다. 오릭스가 2년간 7억6천만 엔(약 1백10억원)을 투자해 한국의 대표 타자를 영입한 이유를 실감할 수 있다.

### 일본 진출 첫해 성적으론 이승엽·김태균 능가

이대호는 먼저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했던 한국 출신 강타자들과 비교해도 돋보인다. 이승엽(현 삼성)은 2003년 삼성에서 아시아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56개)을 세우고 일본 지바 롯데 마린스로 옮겨갔다. 일본 데뷔 시즌이었던 2004년, 타율 0.240(80안타), 14홈런, 50타점에 그쳤다. 2005년에는 타율 0.260(1백6안타), 30홈런, 82타점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듬해인 2006년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이적하면서 비로소 꽃을 피웠다. 붙박이 4번 타자로 활약하며 0.323의 타율(169안타), 41홈런, 1백8타점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이승엽은 요미우리와 오릭스를 거쳐 올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올해 국내 프로야구 타격 1위를 확정한 한화 김태균도 일본에선 고전했다. 그는 2010년 지바 롯데로 건너가 타율 0.268(1백41안타), 21홈런, 92타점으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지난해엔 31경기만 뛰며 타율 0.250, 14타점, 1홈런에 그쳤다. 일본 동북부 지진 이후 불안감이 커지면서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허리 부상으로 2군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결국 치료를 이유로 시즌 도중 귀국해 스스로 퇴단(팀에서 물러남)을 결정했다.

김태균과 이승엽은 올해 국내 무대에서 타격 전 부문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일본이 아직 한국보다 전반적인 야구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 일본 투수들 적극 견제… 특유의 몰아치기 기대

이대호도 이런 점을 실감했다. 기본적으로 일본 투수들의 평균적인 제구력은 한국 투수들보다 정교하다. 타자의 약점을 정밀하게 분석해 파고드는 시스템도 앞선다.

더구나 이대호는 모든 일본 투수가 낯설었다. 한국에서 뛸 땐 투수들의 주무기와 투구 패턴 자료를 머릿속에 입력해 뒀다. 자연 투수와의 수 싸움을 하기가 편했다. 그런데 일본 투수들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시즌을 맞아야 했다. 투수와 대결하며 몸으로 공을 익혀야 하는데, 비디오 한두 번을 보고 타석에 서니 불리했다. 이대호는 모든 일본 투수와 처음 상대해야 했다. 투수와 대결하며 몸으로 공을 익혀야 하는데, 비디오 한두 번을 보고 타석에 서니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투수들은 가급적 장타를 맞지 않으려고 투구한다. 각 팀의 전력이 엇비슷해 1, 2점 차이로 승패가 가려지는 경기가 많아 홈런 같은 '한 방'을 조심한다. 또 일본 투수들은 외국인 거포를 상대할 때 1루가 비어 있으면 볼넷을 줘도 좋다는 마음가짐으로 유인구를 던진다. 반면 외국인 타자들은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유인구에도 방망이를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

선구안이 좋기로 이름난 이대호는 한국 롯데에서 뛰었던 지난해에 8타수에 한 번 정도 삼진을 당했다. 일본에선 6타수에 한 번꼴로 삼진이 늘었다. 그만큼 일본 투수들이 타자를 속이는 공을 잘 던졌다는 뜻이다. 일본은 또 야수들의 수비 범위도 넓다.

안타라고 생각했던 타구가 내야 땅볼로 처리되는 경우가 흔하다. 공인구의 반발력도 예전보다 떨어져 장타가 덜 나온다.

**이대호 시즌별 성적**

| 시즌 | 타율 | 안타 | 홈런 | 타점 |
|---|---|---|---|---|
| 2006 | 0.336 | 149 | 26 | 88 |
| 2007 | 0.335 | 139 | 29 | 87 |
| 2008 | 0.301 | 131 | 18 | 94 |
| 2009 | 0.293 | 140 | 28 | 100 |
| 2010 | 0.364 | 174 | 44 | 133 |
| 2011 | 0.357 | 176 | 27 | 113 |
| 2012(오릭스)<br>※ 9월 26일 현재 | 0.289 | 144 | 23 | 87 |

이대호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슬럼프를 거의 겪지 않으면서 꾸준히 활약했다. 홈 경기 평균 관중 1만9천여 명을 동원하는 오릭스에서 이대호의 인기는 대단하다. 오릭스 팬들 사이에서 이대호의 한글 이름과 등번호 25번이 새겨진 유니폼, 캐릭터가 들어간 응원 수건, 머플러, 화보, 팬 북 등은 히트 상품이다.

이대호의 주가는 상한가를 쳤는데 팀 성적은 바닥을 쳤다. 오릭스는 퍼시픽 리그 최하위인 6위를 확정했다. 오카다 아키노부 감독은 3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오카다 감독은 이대호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보냈던 지도자다. 오카다 감독이 그나마 가장 잘한 일은 이대호를 데려와 4번 타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오릭스는 최근 10년간 7명의 감독을 교체하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기게 됐다.

### "내년엔 홈런 30개 이상 치고 팀도 우승 이끌겠다"

이대호도 물러난 오카다 감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현지 언론에 "오카다 감독 해임은 전적으로 내 탓이다. 내가 입단할 때 일부러 한국까지 왔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플레이한다. 특히 젊은 선수들은 이런 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선수인 이대호가 팀의 정신적인 기둥 역할도 하는 것이다.

이대호는 일본으로 건너갈 당시 "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차 목표는 달성했다. 내년엔 더욱 분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내년엔 무조건 홈런 30개 이상을 때려 팀을 우승으로 이끌겠다. 24개, 25개로 홈런왕을 차지하는 것은 부끄럽다"고 말했다. '빅 보이' 이대호의 화끈한 2013년을 기대해 본다.

글·성진혁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1 김용호의 사진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은 저마다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테면 로봇 장난감은 현대인들의 획일화한 생활방식과 키덜트의 유아적 욕구를 상징한다.
2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영화 〈라돌체비타〉에 담겨 있는 상류사회에 대한 동경, 허상이 김용호의 작품 곳곳에 묻어 있다.
3 사치스럽게 꾸민 여성의 모습에선 화려함보다는 도시인의 고독이 연상된다.
4 김용호는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한 오브제로 진주를 사용했다.

# 화려함 뒤에 드리운 도시인의 자화상

## 김용호 사진전 〈우아한 인생〉

광고사진으로 전시회를 연다? 대다수의 광고사진은 광고가 게재되는 기간만큼만 생명을 지속하다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실제로도 그렇다. 광고사진이 예술의 경계에 닿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김용호의 사진 전시회 〈우아한 인생〉이 특별한 이유다.

신부와 수녀가 키스를 나누는 장면, 흑인과 백인이 나란히 전라로 서 있는 뒷모습. 1980년대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베네통의 광고사진 연작이다. 그 과정에서 인종간 평등, 종교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조명됐다. 아마 그즈음부터였을 것이다, 상업사진의 새로운 기능이 대중적 관심을 얻은 것은. 어떤 상업사진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판다.

서울 한남동 류화랑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작가 김용호의 사진전 〈우아한 인생〉은 한국 상업사진의 현주소를 일별하게 해 주는 전시회다. 김용호의 필모그래피는 한 줄로 요약하기 힘들다. 김용호는 패션사진가로 출발해 상업광고 분야에서 대표적인 사진가로 활동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작가'로서의 행보도 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걸린 20여 점의 사진작품엔 그의 이런 '하이브리드'한 이력이 묻어 있다. 모 신용카드 회사를 광고하기 위해 찍은 사진은 얼핏 보기엔 광고가 아닌 도시의 화려한 삶의 어느 한순간을 세심하게 재현해 낸 화보같이 보인다. 신용카드는 그 자체로 메시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오브제의 하나일 뿐이다.

김용호는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상업광고에 쓰인 사진이 소장 가치 있는 예술작품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전시라는 말이다.

### "영화 라돌체비타에서 모티브 얻어"

〈우아한 인생〉의 사진촬영을 준비하며 김용호는 "페데리코 펠리니의 영화 〈라돌체비타(달콤한 인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말한다. 어쩐지 상류사회에 대한 동경, 허상 등 영화의 느낌이 김용호의 사진에 묻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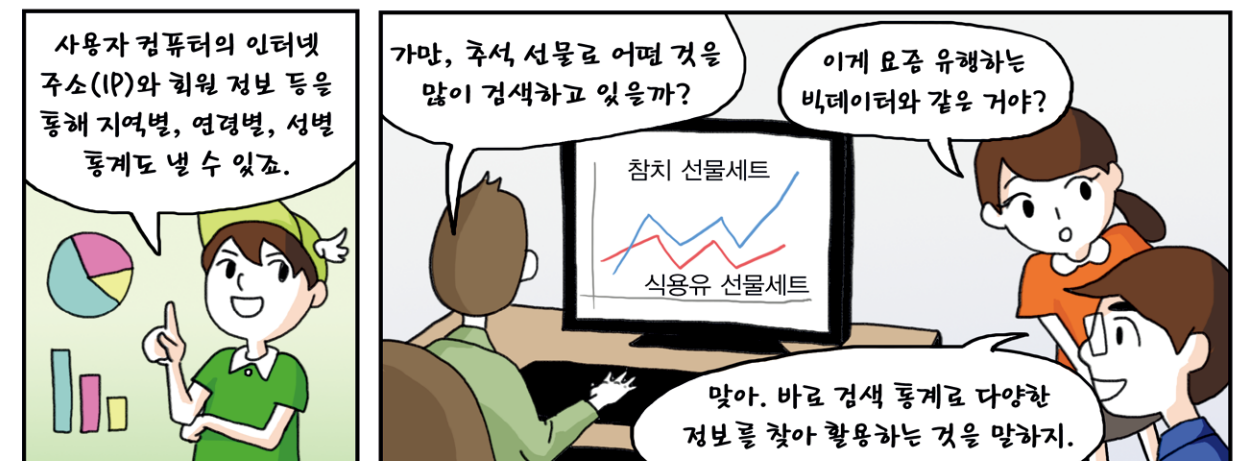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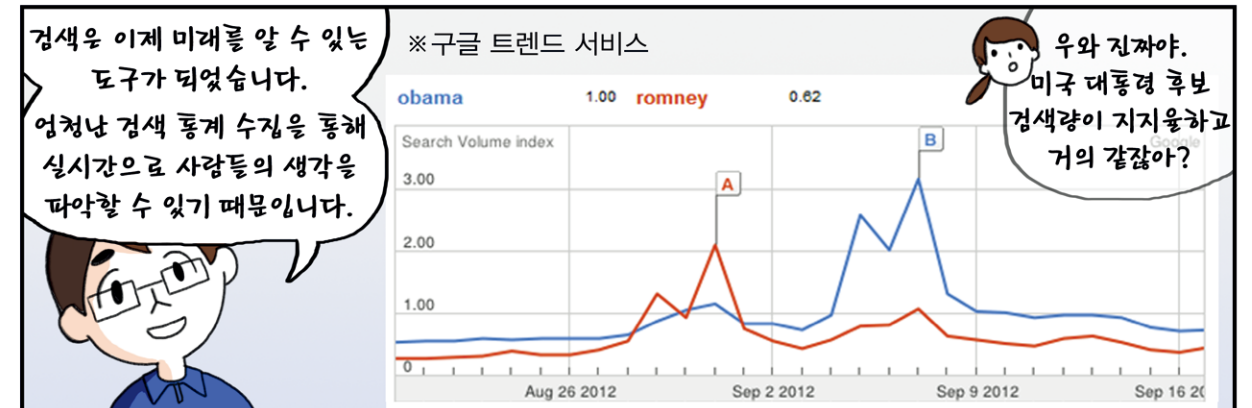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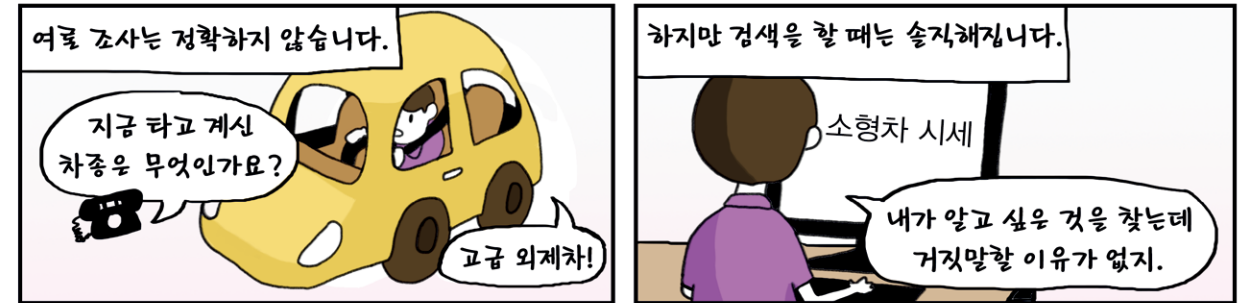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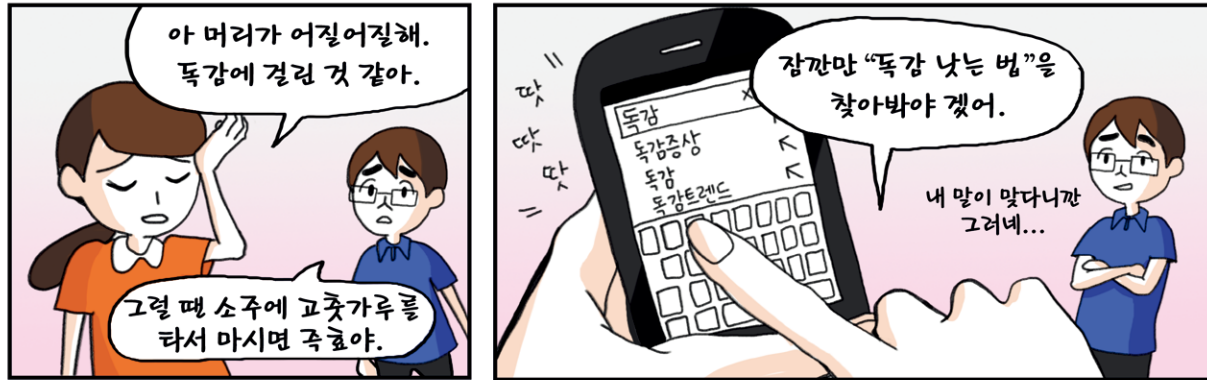
화려한 의상에 보석을 달고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한 인물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질펀한 저녁식사를 즐기는 장면은, 그러나 왠지 고독해 보인다. 화려하지만 행복해 보이진 않는다. 어딘지 미국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닮아 있다.

그러므로 김용호의 사진은 역설이다. 그의 사진에는 소비 중독과 반성의 굴레에서 제자리걸음하는 현대 도시인의 자화상이 투영돼 있다. 전시회를 보고 난 후 괜스레 입안이 마르며 씁쓸해지는 것도 그 때문일 터다. 물신주의를 조장해야 하는 신용카드를 광고하기 위해 제작된 광고사진의 뒷맛 치고는 꽤 쓰다. 그래서일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것이 김용호 작가가 노린 최종 목적인지도 모르겠다.

글·하주희 기자

**전시** 10월 14일까지, 11~20시(월~토), 11~18시(일) **입장료** 없음
**문의** www.ryuhwarang.com, ☎02-6326-3113

# 검색통계로 미래를 알 수 있다!

글. 김인성 / 그림. 김빛내리

제대로 된 한국 포털의 트렌드 서비스가 출현하여 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주마 후보들이 목장을 힘차게 뛰놀고 있다.

# 제주 여행에 빠질 수 없는 테'마'

고려시대에 1백60여 마리의 조랑말이 처음 제주땅을 밟은 뒤부터 이 섬은 말의 고장이 됐다. 쪽빛 푸른 바다를 곁에 둔 해안과 부드러운 곡선으로 봉긋 솟아오른 오름, 중산간 깊은 숲 속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말이 있어 이 섬의 풍경은 더 활기차다. 말은 제주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테마가 됐고 이제 여행객의 발길을 잡아끄는 제주의 마력 중 하나다.

곶자왈을 품은 애월의 중산간 지대에 들어앉은 제주승마공원은 이 섬에선 드물게 1백만제곱미터의 넓은 땅을 가진 승마장이다. 넓은 목초지와 그 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몇 개의 오름, 여기에 삼나무 숲의 풍광이 독특한 느낌을 선사한다.

이곳에서 목장 인근 삼나무 숲으로 승마트레킹을 떠나기로 했다. 교육과 길 안내를 맡은 바타 씨는 몽골에서 온 청년이라고 했다. 그는 내내 웃는 얼굴로, 이국의 낯선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게다가 한국말도 잘했다. 제주의 한 테마파크에 속한 기마공연단 출신답게 설명도 참 조리있게 했다.

그의 인솔 아래 한 시간 남짓 승마트레킹이 이어졌다. 제주의 승용마들은 대부분 경주마인 더러브렛(Throughbred)과 제주 토종말인 제주마의 교배로 만들어진 '한라마'다.

한라마는 1백35~1백55센티미터의 키에 몸무게는 3백50킬로그램 내외다. 크고 위압적인 몸집을 가진 더러브렛에 비해 한결 '만만해 보이는' 체형이다. 승마장의 말들은 초보자가 타도 놀라지 않고 고삐를 당기면 알아서 돌아 주기도 하는 2차 순치(馴致·길들이기) 과정이 끝난 말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은 버려도 좋을 듯하다.

두어 개의 목초지를 지나니 드디어 삼나무 숲의 입구가 보였다. 바타 씨는 숲에 들어서면 마치 공룡이 나타날 것 같은 분위기라고 농담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온갖 곶자왈의 식물들이 깊은 숲을 이루었다. 늙은 나무가 불쑥 말을 걸어올 것만 같았다. 폭신하고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말 등에 앉아서도 그대로 느껴졌다. 그 리드미컬한 움직임에 몸이 익숙해지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숲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다. 몇 개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었는데 말들은 모두 길에 익숙한 듯 흐트러짐 없이 잘도 걸었다. 어느새 말에게 몸을 맡긴 채 삼나무 숲에 이는 바람 소리와 길게 우는 산새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이국적인 애월 제주승마공원 · 한림 이시돌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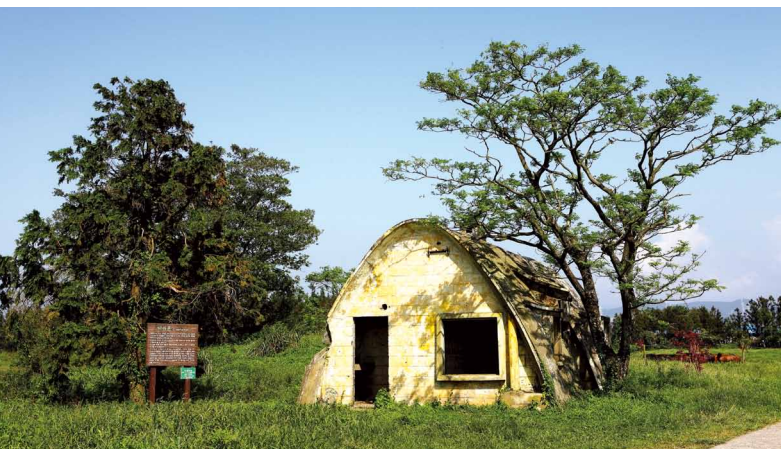
한림읍 금악리의 이시돌목장에 도착했을 때 분주함이 느껴졌다. 도시에선 볼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트럭이 산더미처럼 쌓인 건초더미를 쉴 새 없이 나르고 있었고, 펜스를 두른 목초지 안에서는 태어난 지 1년 안팎의 어린 말들이 떼지어 이리저리 내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혈기왕성한지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말이 딱 저렇지 않을까 싶었다. 흰색 울타리의 목초지 사잇길을 따라 산책을 시작한다. 덜 여문 말들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울음소리를 지나면 내년 봄 출산을 앞둔 말들이 모여 있는 초지가 나온다. 망아지들과는 달리 평온한 분위기로 풀을 뜯는 씨암말들은 생김새와 움직임이 더없이 우아하다.

목장을 가로지르는 삼나무길 너머로 이색적인 건물도 보인다. 이시돌목장의 상징인 '테쉬폰(Cteshphon)'이다.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의 테쉬폰이라는 지역에서 처음 지어졌던 건축양식이라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둥글게 올린 지붕 구조가 매우 독특해 보였다.

1961년 이 목장에서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고 이후에는 축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테쉬폰 주택으로 이시돌목장의 이국적이며 목가적인 분위기를 완성시키는 존재다.

스페인 농부 출신 성인의 이름을 딴 이시돌목장은 한국전쟁 직

곶자왈에서는 승마를 즐기는 동호회 사람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시돌목장의 테쉬폰은 목장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다.

후인 1954년 제주로 온 아일랜드 출신의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P.J.Macglinchey) 신부가 만들었다. 현재 1백50마리의 경주마를 사육하고 있는데, 목장의 50여 마리 씨암말이 해마다 서른다섯 마리 내외의 새끼를 낳는다고 했다. 이곳 출신 말 중에는 과천경마장이나 부산경마장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내고 있는 경주마도 더러 있다.

또각또각 말발굽 소리를 내며 걷는 모양새가 도도하기 그지없다. 한눈에도 멋진 외모와 강해 보이는 긴 다리를 가진 '시스터마돈나'는 이 목장 출신의 경주마다. 이시돌목장 수녀원의 수녀님 이름을 땄다는데 이곳 말들의 이름 중 이렇게 성직자들의 이름을 딴 경주마가 꽤 많다. 시스터마돈나는 말 전용 트레드밀(러닝머신)에 올라 속도와 각도를 달리하며 한참을 달렸다. 휴양을 위해 잠깐 제주로 내려왔지만 컨디션 조절을 위해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다.

지난 봄 태어난 망아지들은 아직 어미젖을 떼지 못했다. 어딜 가나 어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망아지들 사이에 염소 한 마리와 꼭 붙어 다니는 망아지 한 마리가 보인다.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어미를 잃은 녀석을 위해 염소 친구를 만들어 주었단다.

**고려 충렬왕 때 몽골말 1백60마리 첫 상륙**

제주와 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제주도 목장의 시작은 고려시대부터이다. 제주마인 '조랑말'의 등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삼별초 난 이후 원나라가 1276년(충렬왕 2) 제주 수산평에 최초의 목장을 설립해 몽골말 1백60마리를 들여오면서부터이다.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1894년 공마제(貢馬制)가 폐지될 때까지 한라산 중간 지대에서 우도에 이르기까지 제주마를 기르는 일종의 국영목장이 번창했다. 1940년대로 당시 2만여 마리의 제주마가 사육된 전성기를 지나 2011년 말 기준으로 제주마가 1천3백92마리(혈통이 등록된 순종은 2백마리), 더러브렛이 4천1백79마리, 혼혈종인 한라마가 1만6천6백92마리 등 모두 2만2천2백23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풍부한 목초지와 온난한 기후가 제주를 천혜의 목축장으로 만들었다. 중산간 일대 오름에 펼쳐진 목초지에서 방목 중인 말들의 풍경은 이 섬에서 손꼽히는 절경 중 하나이다.

제주의 1백20여 개 목장에서 사육하는 말 중 경주마는 4천1백여 두로 과천과 부산, 제주경마장에서 뛰는 경주마 역시 80퍼센트 이상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에서 훈련을 받았다. 과천과 부산경마장에서는 경주마 더러브렛이, 제주경마장에서는 제주마와 한라마가 경기에 나선다. 더러브렛은 경주를 위해 완벽하게 개량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종이다.

한라산 자락 조천읍의 제주목장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주마 생산과 육성의 산실이다. 이곳을 찾으면 40억원대 몸값을 자랑하는 씨수말 포레스트검프를 비롯한 명마(名馬)들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의 전통마를 만날 수 있다. 제주목장의 경주마 씨수말은 민간 목장의 암말과 교배를 한다.

씨수말들은 성격이 난폭한 데다 예민해 3천여 평의 너른 초지를 독차지하며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매년 3월부터 6월 사이의 교배 시기에는 씨수말 한 마리당 50~60회 정도의 교배를 하기 때문에 체력관리도 필수. 이 때 씨수말들은 홍삼이나 각종 영양제로 몸보신을 한다.

경주마들이 쉬고 있는 마방도 주요 관광코스가 됐다.

제주목장에 가면 마혼비를 쉽게 볼 수 있다.

**제주목장 3킬로미터 트레킹 코스 조성**

제주목장의 씨수말 중에서는 미국에서 들여온 '메니피(Menifee)'와 '비카(Vicar)'의 자마들이 요즘 잘 뛴단다. 물론 혈통이 좋다고 모두 다 훌륭한 경주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천적인 혈통과 외모뿐 아니라 후천적인 훈련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제주목장에서도 자체적으로 1년에 50두 정도의 말을 생산해 그중 '될 놈'을 찾아내 경주마로 길러 낸다. 최소 7년에서 30년 경력의 노련한 조교사와 말 관리사가 임무를 맡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목장지였다는 제주목장의 여행은 3킬로미터 내외로 조성된 트레킹 코스를 따라가면 된다. 목장 안길로 들어서면 수평의 세상이 열린다. 차분하게 사색하며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기존의 트레킹 코스를 새롭게 정비해 여유로운 목장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새단장을 했다. 목장입구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예약하면 어린이들이 무료로 조랑말을 탈 수도 있다. G

글·고선영 (여행작가) / 사진·김형호 (사진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제주시와 중문을 잇는 평화로(1135번)를 이용해 제주경마장과 새별오름을 지난 다음 캐슬렉스 컨트리클럽에서 우회전하면 이시돌목장의 초지가 나타난다. 1132번 일주도로를 타고 하귀와 애월, 금악을 지나가는 방법도 있다. 제주승마공원은 제주경마장 인근 유수암리에 위치해 있고 한국마사회 제주경주마목장은 조천읍 교래리 산굼부리 인근에 위치해 있다. 1118번 남조로를 타면 접근성이 용이하다.

**먹을 곳** 제주에는 맛난 음식이 많다. 그중 흑돼지는 일미다. 육지의 돈육과는 확연히 다른 맛을 자랑하는 제주 돼지고기는 얼리지 않은 두툼한 목살 또는 덩어리째 구워 먹는 '근고기'를 먹어야 비로소 제맛을 느낄 수 있다. 제주시의 **돈사돈(☎064-746-8989)**, **해오름식당(☎064-744-0367)**, 가시리의 **나목도식당(☎064-787-1202)**, 안덕면 **산골숯불왕소금구이(☎064-794-3534)** 등의 전문점이 있다. 면요리도 다양하다. 전통의 고기국수는 제주시의 **국수세상(☎064-757-0566)**과 **올래국수(☎064-742-7355)**에서, 여름의 더위를 식혀 줄 제주식밀면은 모슬포 **산방식당(☎064-794-2165)**, 회와 비빔국수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회국수는 구좌읍 동복리의 **해녀촌(☎064-783-5438)**에서 그 맛을 볼 수 있다.

**제주목장 트레킹** 한라산 오름의 아늑한 정취 속에서 경주마 생산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약 3킬로미터의 코스를 도보나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다. 예약을 하면 홍보 영상물 관람부터 경주마 동물병원, 마혼비(馬魂碑), 교배소, 씨수말 마사, 씨수말 패독(paddock·작은 방목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학도 가능하다.

**여행 정보 문의** **제주종합관광안내소** ☎064-742-8866 **이시돌목장**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09, ☎064-796-4181, www.isidore.co.kr **제주승마공원**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175, ☎064-799-9540, www.jhrp.net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25-2, ☎064-780-0131, http://krafarm.kra.co.kr

# 가을의 제철요리, 두부

두부의 역사는 오래됐다. 중국의 의서 〈본초강목〉이나 우리나라의 〈명물기략〉, 〈재물보〉 같은 고서들은 한결같이 두부를 2천여 년 전 한나라의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발명한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이론은 있다. 일본의 식문화연구가 시노다 오사무(篠田統)는 대만 작가 린하이인(林海音)의 〈중국두부〉에 수록된 두부고(豆腐考)라는 글에서 수, 당대까지의 많은 중국 문헌에 두부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다가 송대 초기의 학자 도곡(陶穀)의 〈청이록(淸異錄)〉에 처음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정약용은 〈아언각비〉에서 중국 고서를 인용하여 회남왕 이전에 두부를 먹었다는 풍설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두부의 자취는 고려 말의 문신 이색의 시문집인 〈목은집(牧隱集)〉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나물국 오래 먹어 맛을 못 느껴 菜羹無味久/ 두부가 새로운 맛을 돋워 주네 豆腐截昉新/ 이 없는 사람 먹기 좋고 便見宜疏齒/ 늙은 몸 양생에 더없이 알맞네 眞堪養老身"라는 시구가 바로 그것이다.

두부는 우리나라에서 사찰음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 이름을 포(泡)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왕릉 인근에는 항상 두부 만드는 절인 조포사를 두어 제수를 준비하게 하였다고 한다.

유창우 기자

"오직 남한(南漢)·북한(北漢) 및 여러 도(道), 산성(山城)을 수호하는 절과 여러 능에 두부를 공급하는 절은 면세토록 함이 마땅하고 나머지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경세유표〉의 구절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옛날부터 유명한 두부에는 '봉선사두부', '연도사두부' 하는 식으로 절 이름이 앞에 붙는 연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조선의 두부 만드는 솜씨는 종주국인 중국에도 이름을 떨쳤던 모양이다. 〈세종실록〉에 명나라 황제가 "왕이 먼젓번에 보내 온 반찬과 음식을 만드는 부녀자들이 모두 음식을 조화하는 것이 정하고 아름답고, 제조하는 것이 빠르고 민첩하고, 두부를 만드는 것이 더욱 정묘하다"며 그 재간을 칭찬한 대목이 나온다.

일본의 두부는 조선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은 한국의 두부가 일본에 전해진 과정을 설명하는 두 가지 설을 기술하고 있다.

### 반찬으로 대중화… 요리로 내놓은 곳은 드물어

하나는 임진왜란 때 일본의 한 장수가 조선에서 그 제조법을 배워 갔다는 설이요, 다른 하나는 역시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간 박호인(朴好仁)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고치(高知)현에서 두부를 만든 것이 근세 일본 두부제조업의 시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에는 그 이전인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92) 말부터 두부가 있었다는 설도 있다.

두부는 오랜 세월 각종 요리는 물론 다양한 국이나 찌개에 빼놓을 수 없는 부재료로,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며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해 왔다. 추사 김정희가 말년에 남긴 작품에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이요 大烹豆腐瓜薑菜/ 훌륭한 모임은 부부와 아들딸 손자와 함께하는 것이다 高會夫妻兒女孫"라는 시구가 있다. 우리의 식생활에 두부가 차지하는 위상을 잘 말해 주는 글귀이다.

음식의 철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동국세시기〉 시월조에 "지금의 반찬 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은 두부"라고 하였듯 요즘이 두부의 계절이다. 서울 서초동의 백년옥은 다양한 두부 요리로 이름을 떨치고 있고, 강원도 속초의 김영애할머니순두부는 부드러운 순두부로 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강릉의 초당할머니순두부는 바닷물을 간수로 쓰는 초당두부의 명성을 이어 가고 있는 집이다. G

글·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음식문화평론가)







# 능력이 되니 아부도 통하지

신숙주(申叔舟·1417~1475)에 대한 학계의 평가나 일반인의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다. 늘 양지만을 추구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신숙주는 단순히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영달을 누린 인물이 아니다. 탁월한 능력과 신중한 처신이 그의 출세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스무살 때인 세종21년(1439년) 문과에 급제한 신숙주는 집현전 학사로 선발돼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승진을 거듭했다. 집현전 근무 시절 그의 독서열은 당시에도 화제가 될 만큼 강렬했다. 도서관 격인 장서각에 살다시피 하며 온갖 책들을 두루 섭렵했고 숙직을 하게 될 때는 밤늦도록 책을 보아 세종이 걱정을 할 정도였다.

흔히 신숙주가 훈민정음 창제에도 관여했다고 하는데 훈민정음 창제가 세종25년임을 감안하면 창제보다는 창제 이후 반포까지 3년 사이에 훈민정음이 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점검할 때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무렵 언어학자이자 명나라 한림학자인 황찬이 죄를 짓고 요동에 유배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종은 신숙주를 무려 13번이나 보내 훈민정음을 질정(質正)토록 했다.

그에게 역사적 시련이 다가온 것은 단종 즉위년(1452년)이다. 이때 수양대군이 사신이 되어 명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수양은 신숙주를 서장관(기록을 맡은 사신)으로 추천했다. 이 사행(使行)으로 인해 세조와 신숙주는 동지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듬해인 1453년(계유년) 겨울 수양이 한명회 등과 정란을 일으켰을 때 신숙주는 외직을 맡아 지방관리로 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양은 손수 교서를 써서 "만리 길을 동행하며 나라를 위해 죽기를 맹세했다"며 정난공신에 책봉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도승지에 오른다.

그러나 세조2년(1456년) 여름 사육신의 옥사가 일어났다. 이때 세조는 신숙주로 하여금 옥사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집현전의 옛 동료들을 처벌하는 지위에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훗날 두고두고 그에게 '변절자'라는 딱지가 붙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런 명분과는 별개로 세조와 신숙주의 관계는 가장 바람직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범 사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국조인물고〉에서는 신숙주를 이렇게 평하고 있다. "공은 오래도록 요직을 맡으면서 조용하고 순리에 맞게 하되 항상 은근한 비유로써 임금의 마음을 만족시켰고 일찍부터 직언을 팔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았다."

일러스트 · 유재일

*단종 즉위년 수양대군이 명나라 사신으로 갈 때 서장관으로 동행하여 평생 동지적 관계 맺어*
*문무에 능해 야인 정벌 등 나라에 큰 공로*
*사육신 옥사 탓 두고두고 '변절자' 딱지*

바로 이 때문에 아부만 하던 신하라는 혹평이 따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서 세조는 항상 "제나라 환공에게 관중이 있고 당 태종에게 위징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신숙주가 있다"고 말하곤 했다.

신숙주는 병사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세조2년 병조판서에 올랐고 세조6년에는 강원 함길(함경) 양도의 도체찰사가 되어 야인을 정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세조에 이은 예종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어린 성종을 왕위에 올려야 한다고 정희대비에게 주청한 장본인이 신숙주다. 그리고 성종 때 그는 영의정에 오른다. 벼슬로서는 최고의 정점에 오른 것이다.

신숙주는 중국어와 일본어에도 능통했다. 그래서 일본과 여진의 산천과 요충지 등을 상세히 기록한 지도를 만들어 훗날 국방의 기본서적이 되게 하였다. G

글·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 외면해도 존재하는 진실들

이학준 지음
쌤앤파커스 · 1만5천원

여섯 살 여자아이 미향이는 태어날 때부터 무국적(無國籍)이었다. 엄마는 탈북자. 진짜 아빠는 엄마가 북한에서 사랑했던 남자. 옌지(延吉)에서 함께 사는 아빠는 엄마가 팔려 시집온 중국인이었다. 미향이는 선천성 난청(難聽). 말도 행동도 늦됐다.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엄마는 탈북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미향이를 스위스에 입양시키기로 결심했다. 눈물의 이별을 거쳐 미향이는 중국→라오스→태국→한국을 거쳐 스위스에 입양됐다. 생명을 건 탈출과 만남·이별이 이어지면서 미향이는 '애어른'이 돼 버렸다. 너무도 쉽게 이별했다. 상처받기 싫은 듯 지난 기억은 쉽게 지워 버리고 있었다.

스위스 공항에서 처음 만난 양부모에겐 친부모를 만난 듯 그 품에 뛰어들었다. 미향이는 이제 '조엔나 델러'가 됐다. 국적을 얻고 이름을 잃었다. 스물다섯 살 성국의 아내는 같은 탈북자 처지로 하나원에서 만난 한 살 연상의 수련. 수련의 가족들도 남한으로 오고 싶어했다. 성국은 아내의 남동생과 이모, 이모의 딸까지 탈출시키기로 마음먹는다.

### 다큐 〈천국의 국경을 넘다〉 제작 경험 펴내

방법은 밀항선을 타고 오다 공해(公海)상에서 배를 갈아타고 남한으로 데려오는 것. 랴오닝성의 한적한 어촌에서 성국의 처가 식구들을 태운 배가 출항한다. 시간에 맞춰 군산에서도 이들을 맞아 줄 배가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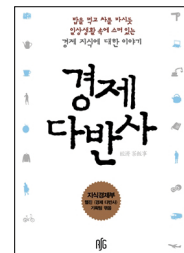
하지만 바다는 사납다. 5미터가 넘는 파도가 덮치고 약속했던 접선시간을 놓치고 만다. 사실 망망대해에서 조각배 두 척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결국 중국을 출발한 지 30시간, 한국을 출발한 지 18시간 만에 두 척의 배는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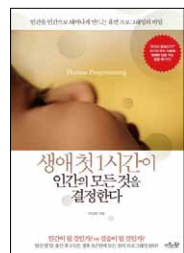
드디어 가족이 함께 단란하게 살 수 있는 기적이 이뤄졌다 싶은 순간, 수련의 건강상태가 이상하다. 구토가 잦고 체중이 급속히 빠졌다. 진단 결과는 위암 말기. 수술과 12차례의 항암 수술…. 그래도 성국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BBC를 비롯한 세계 25개국에서 방영된 충격 다큐 〈천국의 국경을 넘다〉를 제작한 경험을 책으로 엮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가까운 기간에 15개국의 국경을 넘나들며 밀입국과 밀항을 거듭하며 직접 체험한 탈북자들의 스토리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지 깊이 되묻게 한다. 때론 너무도 끔찍해 외면하고 싶지만, 지금도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G

글 · 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

## 새로 나온 책

### 경제 다반사
지식경제부 웹진 팀 | 레디셋고 · 1만5천5백원

지식경제부가 운영했던 웹진 '경제 다반사'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어려운 경제 지식들을 일상적 예화를 들어 풀어 냈다. '왜 글로벌 경제 위기는 반복적으로 찾아올까?' '왜 나도 모르게 지름신과 만나게 되는 걸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또 마치 친구 같은 전문가가 옆에서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것처럼 친근한 문장으로 구성해 읽는 맛을 더했다.

### 생애 첫 1시간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교원 지음 | 센추리원 · 2만원

이 책의 저자인 이교원 교수는 지난 3년간 4백명 이상의 아이를 '세상과 공명하는 태교법'과 '사랑수 분만법'으로 탄생시켰다. 저자는 제왕절개와 유도분만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태교와 출산이 아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년간 연구했다. 그 결과 임신 10개월, 생후 1시간, 출산 후 3년간의 기간이 아이의 모든 것이 프로그래밍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밝혀 냈다.

### 식탁 위의 논어
송용준 지음 | 페이퍼로드 · 1만4천8백원

송용준 교수와 가족들의 '논어' 공부를 팟캐스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화제를 모았던 팟캐스트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서울대 중문과 교수인 저자는 가족을 상대로 8개월간 논어 강의를 했다. 전반적인 진행은 저자인 아버지 송용준 교수가 맡고 있지만 어머니의 재치있는 지적과 젊은 두 딸이 덧붙이는 현대적 해석 및 질문은 듣는 이의 흥미를 더욱 불러일으킨다.





## 정말로 사랑한다면...

글과 그림 · 최영순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열정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찾아오는 것은 편안한 행복이다. -수잔 포워드(미국의 심리 치료 전문의)

김병석 드로잉전 〈너에게 가는 길〉은 귀농 5년차 작가가 농부의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와 감정들을 그림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도시를 떠난 귀농 화가 여백으로 일상을 그리다

## 김병석 드로잉전 〈너에게 가는 길〉

너나없이 모두 서울에서 제자리를 찾으려고 아우성치는 세상이다. 그 자리를 등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화가의 화폭에는 어떤 그림이 담겨 있을까. 강원도 강릉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서양화가 김병석의 이야기다. 그의 '귀향 이후'를 담은 드로잉전이 강릉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회의 제목은 〈너에게 가는 길〉이다.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활동하며 두 번의 개인전을 열었던 김병석은 작품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5년 전 강릉에 정착했다. 김병석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과정에 미술 외적인 생활의 가치들을 채집해 그림에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의 귀향 이후를 촌평했다. 24점이 출품되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김병석은 '새 출발' 하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김병석의 작품에는 그가 포착한 일상의 어느 순간, 그리고 삶의 풍경에 대한 화가의 생각이 담겨 있다. 화가는 "사람들이 집에 걸어 두고 가볍게 향유할 수 있는 작품을 그리고 싶었다"며 "거창하지 않은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다"고 했다. 화가가 고향의 밭에 씨를 뿌릴 때, 그의 마음에도 어떤 씨앗이 뿌려진 것이리라. 그 첫 꽃봉오리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다. 전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G 정리·정소안 인턴기자

**기간** 10월 9일까지 **장소** 강릉시립미술관 **문의** ☎033-655-9600

### 공연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는 한글 창제의 비의(秘義)와 법리(法理)를 우리의 전통 공연 양식과 연희를 채용하여 한국 전통음악과 함께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한 연극 작품이다. 같은 제목의 드라마를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정명의 동명 원작 소설을 각색했다. 원작의 줄거리와 주제의식을 연극적 시공간에 오롯이 담아 냈다. 이번공연의 각색은 홍원기 , 연출은 이기도가 맡는다.

**기간** 10월 6 ~31일 **장소** 극장 용
**문의** ☎02-3676-3676 / 070-4084-3676

### 공연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서 매년 10월 개최되는 국제재즈페스티벌이다. 해마다 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정상급 28개 팀과 국내 14개 팀이 참여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국제재즈 쇼케이스 프로젝트 등이 눈길을 끈다.

**기간** 10월 12~ 14일 **장소** 경기 가평군 자라섬
**문의** ☎031-581-2813~4

### 10월 첫째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9월 16일~9월 22일

| | 곡명 | 가수 |
|---|---|---|
| 1 | All For You | 정은지, 서인국 |
| 2 | 느린노래 | 백아연 |
| 3 | 그XX | G-dragon |
| 4 | Sexy Love | 티아라 |
| 5 | 우리 사랑 이대로 | 정은지, 서인국 |
| 6 | 립스틱 | 오렌지 캬라멜 |
| 7 | I Need You | 허각, 지아 |
| 8 | 좋겠어 | F.T 아일랜드 |
| 9 | 니가 싫어 | 어반 자카파 |
| 10 | Poison | 시크릿 |



# 푸른 숲 빨간 숲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금연! 세상이 향기로워집니다.

# 우리를 슬프게 하는 운전에티켓

배우 이병헌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사소하다.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이 도로의 무법자들을 혼내 주는 장면이 있다. 앞차가 조금 천천히 간다고 뒤에 바짝 붙어서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고, 그것도 모자라 창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지면서 욕하는 녀석들…. 영화에서처럼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운전자라면 한두 번 경험했을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냥 당하고 만다.

하지만 우리의 병헌씨는 속력을 멋지게 내서 그 무법자들을 쫓아가고, 한강 다리 위에서 녀석들의 차를 가로막아 서곤, 양복을 단정하게 여민 다음 신사의 걸음걸이로 뚜벅뚜벅 다가가서 세 놈의 '아구통'을 날리고 팔을 꺾으며 발로 차 버린다.

광화문 사무실에서 여성 편집자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공감하면서 그간 운전하면서 당한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운전자들이 너무나 거칠고 협박하듯 욕을 하고 간다는 거다.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말이다. 그때는 무섭기도 해서 그냥 돌아오는데 생각하면서 할수록 억울하고 분해서 화병이 날 지경이라고 했다.

나 역시 몇 번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싸울 뻔한 일이 있지만, 그냥 욕을 하거나 싸우고 나서의 창피함을 먼저 떠올리곤 그냥 가 버린다. 간혹 분한 일이 있으면 두고두고 생각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도로에서 뭘 어쩌겠는가 싶기도 하다.

### 차간거리 유지 뭐가 힘든지… 양보문화 아쉬워

운전을 하다 보면 깻잎 한 장 사이로 갑작스럽게 훽 끼어들어 오기, 보복운전 하면서 위협하기, 창문 열고 오물 버리기, 갑자기 경적 울리기, 기타 등등.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도로에선 차량과 차량의 적당한 거리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울분을 삼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우하지 않았더라면 교통사고는 지금보다 1백 배는 더 일어났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운전자들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서이다.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가는 것은 운전의 기본인데, 기본이 지켜지지

일러스트 · 유현호

않는 세상엔 불법이 난무한다. 차간거리가 바로 사람의 거리이고, 문화의 거리이다. 교통질서가 어지럽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경제·정치의 시스템이 단단히 고장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도로 신호에 비보호가 많다고 한다. 웬만한 거리는 비보호 신호로 해 놓으면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를 해서 먼저 가게 하고, 그런 마음자리로 교통질서가 원활하고 사람들의 표정이 온화하다.

오늘 아침에 일산 마두도서관 앞에서 어떤 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어떤 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8차선 도로의 한가운데 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운전자가 도서관 쪽으로 달려간다. 무단횡단자는 도망을 간다.

아이고, 참. 저걸 어쩌나 싶다.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아마도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갑작스러운 사람의 출현에 무척 놀랐을 것이다. 놀란 운전자는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한다. 보통 차창 한 번 열고 욕을 하거나, 그냥 가는 것이 좋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분노가 눈을 가리지 못하게 하자.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내 마음과 분노의 거리를 멀리하면 언젠간 우리나라 도로 전체가 비보호 신호로 바뀔 것이다. 오늘도 복잡한 도로 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한다. G

글 · 원재훈 (시인 · 소설가)